사단법인 전국신문협회
The Association of National Newspaper

대전투데이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647호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수능 개편 1년 유예… 현 중2부터 적용

"절대평가 사회적 합의 불충분… 소통 · 공론화 과정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1학년도로 예정했던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시안 2가지 중 하나를 개편안으로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고교 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해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래지향적인 대입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개편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사회부총리는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연구 및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대입전형과 이후의 수능 개편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논의와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수능 개편 유예에 따라 현재 중3학생이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2018학년도)과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대학 및 교육청과 협력해 중3 학생과 학부모가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정복 기자

수소로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 만든다

카셰어링에 활용, 친환경에너지 · 공유경제 결합

태양광 발전으로 수소를 생산해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에 공급하고, 이 수소차를 카셰어링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와 공유경제가 결합한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이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시동을 건다.

도는 아산시, 도원피엔비와 공동으로 마련한 '스마트 수소충전소 구축 연계 카셰어링 사업'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2017년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년까지 8억 원을 투입해 수소를 자체 생산 · 공급 할 수 있는 스마트 수소충전소 1기를 설치하고, 수소차 두 대를 구입(추후 10대)한 뒤, 수소 판매 및 차량 대여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우선 수소충전소는 하루 동안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 20㎾와 심야전력 9㎾로 물 32㎏을 전기분해해 3.5㎏의 수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수소충전소는 또 총 30㎏ 규모의 수소를 저장하고, 수소차에 대한 공급(충전)까지 가능하다.

도는 이 수소충전소를 내년 아산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주중 관공서 업무용으로, 주말과 휴일에는 관광객 대여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경제성은 일단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수소차 완충에 필요한 수소는 5.4㎏이다.

스마트 수소충전소를 통한 수소 1㎏ 생산 원가가 200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판매가가 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소차 1대 완충 시 1만 6200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셰어링을 통해서는 수소차 1대당 1개월에 100~2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수소차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보급 확산, 수소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설치할 수소충전소는 작고 간편하며, 상용화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1㎏ 당 7000원 대인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공급 수소에 비해 가격이 훨씬 싸고, 수소차 셰어링 역시 사용료가 저렴해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유경제와 친환경 에너지를 결합한 이 사업은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 차량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소차는 외부 공기와 저장 수소의 반응으로 자가발전 주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오염물질 없이 물만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의 친환경자동차'로 불리고 있다.

수소차는 특히 미세먼지의 99.9%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수소차 1대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SUV 2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수소버스는 40~50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수소차는 연간 1.9~2.1톤의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전기자동차에 비해 운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은 짧다.

도는 지난해 '수소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한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원주의료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운영 MOU 체결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학장 이배섭)는 8월 31일, 원주의료고등학교(교장 이학노)와의 교과과정 연계운영을 위한 MOU체결이 있었다

이번 MOU는 최근 바이오의약산업 발전에 따라 의료기기와 바이오의약 직종 접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의료기기분야 마이스터고인 원주의료고등학교가 먼저 요청하였고, 바이오 전문인력양성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가 지원에 적극 협력을 화답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이배섭 학장은 "우리대학은 고교 교사 연수, 교과과정 개설, 교과서 집필, 그리고 시설 및 장비 선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4개의 바이오 관련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왔으며, 이제 원주의료고가 우리 대학의 5번째 바이오고교 가족이 된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지원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원주의료고의 바이오의약 직종에 대한 원활한 접목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는 매년 바이오산업의 신규 수요를 고려한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매년 90% 이상의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달성해 오고 있다. 바이오캠퍼스는 오는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2018년도 수시 1차를 모집하며, 바이오관련 6개 학과에서 1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북핵 · 미사일 문제 해결 중남미도 관심 가져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북한을 올바른 선택으로 이끄는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제8차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야말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가 당면한 최대의 도전이자 긴밀한 국제적 공조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FEALAC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가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가 결코 강대국들 간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는 아시아 및 중남미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 아세안(ASEAN), 메콩 국가 및 인도 등과의 신남방 협력과 러시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신북방 협력을 연계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충남 '논산 노강서원' 국가지정 사적 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논산 노강서원(論山 魯岡書院)」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0호로 지정했다.

논산 노강서원은 숙종 1년(1675년), 조선 중기의 문신인 팔송 윤황(八松 尹煌, 1571~1639)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지방민의 유학 교육을 위하여 세운 서원이다. 숙종 8년(1682년)에 사액(賜額)을 받았고, 윤황을 비롯한 윤문거(尹文擧, 1606~1672), 윤선거(尹宣擧, 1610~1669), 윤증(尹拯, 1629~1711) 등 충청도 지역 소론계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배향(配享, 신주를 모심)하고 있다.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毁撤)되지 않고, 창건 이후 현재까지 340여 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 온 유서 깊은 서원이며 특히, 노강서원 강당은 17세기 말 이 지역 유교건축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2011년 보물 제1746호로 지정되었다.

노강서원은 전학후묘(前學後廟)의 구도로 외삼문, 강당, 사당을 서원의 중심축에,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는 대칭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 서원건축의 규범을 잘 보여주는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충청남도, 논산시 등과 협력하여 '논산 노강서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박봉관 기자

"공관병 제도 폐지… 갑질 처벌 강화"

이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 각 기관별 운영규정 정비"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낸다는 각오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며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잘못된 갑을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 중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는 유통업계, 방송계, 산업계 등 사회 곳곳의 갑질문화를 뿌리 뽑는 숙제들을 풀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을의 억울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8월에 모든 부처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총리실이 불시에 점검을 했다"며 "그 결과 국내는 물론 해외의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하고 갑질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 모든 부처와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생활화학제품의 국민불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생활화학제품과 먹거리를 둘러싼 위협요인들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력을 다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다"며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미지에 대한 공포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워하는 것"이라며 "사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불안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하면서 그것들을 과학적이되 알기 쉽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 등 모든 관련부처는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해서 국민 불안을 없애고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정환기자

중구의회 하재붕 의장,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격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하재붕 의장은 8월 31일 대전 YWCA(대전 중구 대흥로 128/대표 김정민)가 위탁운영 중인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관계자와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격려하였다. 하재붕 의장은 센터관계자들로부터 운영사항을 청취하고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 '전원개발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원개발사업계획 수립부터 주민동의받아야

전원개발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나 발전사가 송·변전시설이나 발전소를 건설할 때에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전원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설계도나 서류 제출만으로 송전탑 등 시설물의 건축 허가 및 승인으로 간주하도록 한 현행 의제조항을 삭제한「전원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재산상 손해와 건강, 환경문제 등으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송전탑은 전국에 이미 4만 여기가 넘게 설치되어 있다.

송전탑 문제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밀양을 비롯하여 군산, 당진, 청도, 횡성, 광주 광산 등 현재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현행 '전원개발 촉진법'은 전원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 송전탑 등 시설물 건설 시에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허가, 신고, 승인 절차를 생략한 의제 규정을 둠으로서 절차의 신속만을 강조한 문제점이 있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전원개발 촉진법은 개발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던 1970년대에 제정된 법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절차 등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전원개발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동의 절차를 두고 절차의 신속만을 강조한 일부 의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설명회 9월 4일 대전서 실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은 9월 4일 오후 7시 월평동 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민주당·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실천과제를 지역에 찾아가 설명하고, 국정과제를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상생의 국가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설명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제작한 영상자료와 100대 국정과제 자료집을 토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인 박범계 시당위원장이 관련 브리핑과 함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를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과 김성주 부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도내 교복나눔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이진환 의원, 충남교육청 교복나눔 조례안 대표발의…7일 최종 의견

충남도의회가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학부모와 시민단체 위주로 소소하게 이뤄졌던 교복나눔 운동이 체계적인 지원 속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제298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진환 의원(천안7·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교복나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부모들에게 교복구입 부담을 가볍게 하고,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높이는 교복나눔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복나눔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 위탁 및 각급 학교장과의 협력 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당장 위탁사업 및 필요 경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단체 참여 유도 등 활발한 교복나눔 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위탁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교복나눔이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실현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행·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현장방문

충남도의회가 서해안의 기적이 고스란히 담긴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을 찾아 운영 등 유지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31일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설치 시설물을 점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안건해소위에 따르면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만리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기념관은 2014년 10월부터 115억6500만원을 들여 1만 761㎡ 부지에 연면적 262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이 기념관은 시운전을 거쳐 9월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안건해소위 위원들은 10주년 기념행사 전 보완 시설물을 확인하고, 해양생물 되살리기와 타르볼 제거 등을 체험했다. 기념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는 지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구축 등 기념관 운영과 유지관리 방향 등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 이어 기념관의 전시물 수집 전시를 비롯한 체험행사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맹정호 위원장(서산1)은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유래가 없는 일이다"라며 "123만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전 국민의 성원으로 극복한 만큼 기념관이 재난극복의 숭고한 국민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 '청소년 지방정치 아카데미' 학생 모의의회 체험

청소년의 눈에 보이는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고등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천안아산경실련에서 주관하는 '2017 청소년 지방정치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천안아산 소재 고교생 25명은 지난 30일 천안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청소년 지방정치 아카데미는 학생들이 삶과 밀접한 정치를 이해하고 직접 견학 및 토의, 토론을 통해 지방정치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의회 홍보관을 둘러보고 본회의장을 찾아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이어 오룡홀 2층에서 의원과의 오찬을 겸한 멘토링 간담회를 갖고 모의의회에 직접 참여했다.

모의의회에서는 의사절차에 따라 의사보고, 제안설명,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 등 실제 의사진행과 동일하게 체험했으며, 특히, '청소년 복합센터건설', '천안시 청소년 입시 컨설팅 지원사업' 등 학생들이 직접 발굴한 의안을 다뤄 열띤 토론과 학습의 장이 펼쳐졌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남주 의원,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 목적 발의

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05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실태조사, 평생교육 운영 및 홍보 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

박남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맞춤형 평생교육 실현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9월 4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천안=김정환기자

공주시의회, 충남시·군의회 의원 및 사무국 합동연수 참석

공직선거법 전략적 활용과 의정활동 실전사례중심 종합전략 강의

공주시의회(의장 윤홍중)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남 시·군의회 의원 및 사무국·과 직원 합동연수에 참석했다.

시의원과 사무국직원 총 16명이 참여한 이번 합동연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연수 주요내용으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이며,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인 안병도 교수로부터 공직선거법, 전략적 활용에 대한 강의에 이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부터 의정활동과 실전사례중심 종합전략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 날 의정연수에 참석한 윤홍중 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정연구 활동으로 전문성을 키워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연수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했으며 충남 13개 시·군 의회 의장, 의원 및 사무국·과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적법·유효

세종시의회는 지난 6월 제43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방과후학교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세종시지부가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조례는 '상위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고문변호사와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된 자문결과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조례는 교육행정을 준수해야 하는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등과 같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말하는 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7추103)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뜻하므로,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조례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려면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나 [초·중등교육법]에는 그러한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

셋째, 세종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조례 제6조제1항을 보면,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학교장에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조례는 지난 10년 넘게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전국 최초의 조례로, 지난 해 3월부터 교육청 협의 5회, 입법 간담회 1회, 교육부 질의 등을 통해 제정된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 방과후학교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 교사, 학부모,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세종=이정복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초심 잃지 않는 신뢰의 정치 펼치겠다"

강정규 대전 동구의회 의원

강정규 대전 동구의원은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소신있는 정치를 몸소 실천해왔다. 특히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탁상 의정 활동이 아닌 현장행정을 더욱 중요시 했다. 또한, 강 의원은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들 곁에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고민해왔다. 강 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제7대 대전 동구의회가 개원 3년을 맞았는데요.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으로 구민행복을 약속하면서 시작된 제7대 의정활동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을 정리하고 1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감회가 새롭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회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신 대전투데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역할은 다르다고 하지만 구민 행복이라는 가치 추구라는 면에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를 비롯한 11명의 동구의회 의원 모두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왔고,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고, 특히 현장 의정에 힘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해 주시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 2009년 8월 목척교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신도극장 앞 일원이 일방통행으로 전환된 이후 접근성이 떨어져 상권 붕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대전시와 경찰청에 대전천 선화교~목척교 구간 일방통행 해제요청 건의를 시작으로 주변 1114명의 진정서를 전달하면서 양방차로로 변경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외에도 동구청 앞을 지나는 노선이 2개뿐이라 새로운 노선 신설이 시급했고, 신규 공동주택 단지 주변은 긴 배차간격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버스노선 신설과 증차를 건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역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608번 노선 신설하고 512번 버스 1대를 증차하여 지역주민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한 것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대전 동구 지역의 현안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대전지역 동서 교육격차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신도시로의 인구유출은 멈추지 않고 있고 동부지역 학교와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세입니다. 일정비율의 시 예산을 동부 소외지역에 투자하여 교육과 지역 발전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합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쇄업을 하면서 우연히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불합리한 점들을 보았고, 이런 것들을 주민의 손발이 되어서 해결해 보고 싶은 의욕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의원님은 어떠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지요.

거상 임상옥은 가득 참을 경계하는 술잔인 '계영배(戒盈杯)'를 항상 가지고 다니며 개인의 욕심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각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답사한 후 의견을 내놓습니다.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전거 타는 구의원이라는 말을 좋아 합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주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활용해 소통 방안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지방자치가 어려운 것은 증가하는 복지비용 부담도 문제지만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비용 또한 문제입니다.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은 대전시에서 유지 · 관리를 하고 전기료는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서 우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하차도 보도 전기료 17억 원을 지원받아 동구 세수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범인 검거를 위해 설치하는 방범용 CCTV 운영비와 20m 이상 가로등 전기료를 국비와 시비로 부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요건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26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130년, 미국은 200년이 넘었습니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하나의 수레바퀴입니다. 집행기관은 지방의회를 지방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서로 협의하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기관이 견제와 협력 관계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주민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제7대 의회도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처음 자세 그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오는 기회는 꼭 잡을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드릴 말씀은.

부족한 의정활동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의장단에 참여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의정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지난 6대 구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나보다는 구민을 위해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대담=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 정리= 김정환 기자

●동 정●●●

전국장애인탁구대회 개회식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1일 오후 2시 30분 한밭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0회 대전광역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개회식'에 참석.

대전국제와인페어 개막식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1일 오전 10시에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7 중구 구민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오후 5시에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리는 2017 대전국제와인페어 개막식에 참석.

전국 장애인탁구대회

한현택 동구청장= 1일 오후 2시 30분 한밭체육관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 참석.

제41회 구민의 날 기념식

박용갑 중구청장= 1일 오전 10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41회 구민의 날 기념식' 참석.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간담회

장종태 서구청장= 1일 오전 11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수료식

허태정 유성구청장= 1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문학마을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수료식에 참석.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간담회

박수범 대덕구청장= 1일 오전 11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간담회에 참석.

市, 수도권 등 4개 유망기업과 투자 · 지원 업무 협약 체결

274억 원 투자 162개 일자리 창출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수도권 등 국내 4개 기업과 투자 및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권선택 시장과 ㈜플랙스시스템 이충환 대표, ㈜JBK 장유덕 대표, ㈜동현엔지니어링 신현철 대표, ㈜성진테크윈 이계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4억 원 규모의 투자 및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업 투자 예정지역은 ▲수도권 항공 · 방산산업 정밀기기 제조 ㈜플렉스시스템은 동구 하소 산업단지 ▲평택권 자동차부품 및 의료기기 제조 ㈜JBK와 세종권 타이어 제조설비 및 초정밀 가공 ㈜동현엔지니어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지구 ▲미국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부품공급 및 국내 최초의 한국형 헬기 조종간 개발업체로 선정된 지역 업체 ㈜성진테크윈 등은 지역 내에 입주 부지를 마련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내용은 ㈜플렉스시스템은 공장 신설투자(30억 원), ㈜JBK와 ㈜동현엔지니어링은 본사 · 공장 · 연구소 지역 내 이전투자(170억 원), ㈜성진테크윈 수도권 연구소 이전 및 본사 · 공장 확장 이전투자(74억 원)이고 투자규모는 총 274억 원이며 투자가 완료되면 162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권선택 시장은 "기업들이 이전 및 신설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에 투자를 결정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원활한 투자를 위해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및 각종 인 · 허가 등 행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건설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호 기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市, 장애인의 피해구제 · 인권향상 기대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대전장애인옹호기관이 31일 오전 11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 · 도별로 설치 운영한다.

시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를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옹호기관은 장애인 인권상담 및 학대신고 · 접수와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 피해 장애인에 대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권선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 복지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인은 상존한다"며 "차별 인식이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범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인권과 복지가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중구, 보훈단체 클린사업 동참 업무협약 체결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달 31일 보훈회관 강당에서 중구보훈단체 협의회(회장 이상호)와 클린사업 동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구보훈단체 협의회는 중구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9개 보훈단체로 상이군경회 중구지회, 무공수훈자회 중구지회, 광복회 중구지회, 전몰군경 유족회 중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중구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중구지회, 월남참전자회 중구지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중구지회,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로 총 3,162명의 회원이 속해있다.

중구보훈단체 협의회(회장 이상호)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보훈회관 클린데이를 지정 운영해 보훈회관 주변 환경취약지역을 청소하고, 회원들의 거주 마을의 클린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이상호 회장은 "우리 마을을 깨끗이 하기 위해 전 주민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중구 보훈단체도 작은 힘을 실어주고자 클린사업 동참하게되었다."고 밝혔다.

박용갑 청장은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유공자 어르신들께서 참여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운동인 '우리동네 클린사업'이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만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시립미술관 생활문화센터 개관

21C 새 복합문화공간 탈바꿈

대전시립미술관(관장 이상봉)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할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했다.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창작하는 향유자 지원' 생활문화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립미술관 1층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됐다.

생활문화센터는 어린이, 가족단위 미술 체험공간과 미술관만의 특성화된 생활 속의 판화강좌를 운영하고 결과물을 전시로 연계해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향유에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주요공간인 '마주침공간'은 시민들의 마주침을 통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개방형 공간이다.

사용 신청은 미술, 음악, 무용, 생활스포츠댄스등 순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모임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스포츠(등산, 자전거 등) 동호단체, 치료나 상담 목적 모임, 학교 · 학원 · 교습소 목적의 모임, 언론사 · 방송인 · 회사 등의 내부모임>등은 사용할 수 없다.

올해는 생활문화센터 홍보차 무료로 대관하며 사용시간은 주중(오전10시~오후 6시)에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사용시간과 요일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봉 대전시립미술관장은 "미술관이 과거의 미술품 수집, 보관, 전시의 기능을 넘어 21세기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대덕마더센터' 오는 2일 개소

대덕구, 소통 공간 역할 · 사회적 서비스 기능 강화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여성과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대덕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관주도 전국처음으로 '대덕마더센터'를 8월말 조성 완료해 오는 2일 개소식을 갖는다.

31일 구에 따르면 '대덕마더센터'는 여성친화도시 2년차인 구가 야심차게 계획해 여성들의 소통공간으로 소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송촌동 동춘당공원 내 설치했으며, 북카페, 창작실, 육아돌봄방으로 구성돼 간단한 음료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운영관리는 공개모집 및 적격심사를 거쳐 '마더쉼 협동조합'이 선정돼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개방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입지조건을 갖춘 대덕마더센터가 앞으로 지역 여성들의 소모임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여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창의력 향상과 재생능력을 배양하는 소통 공간 역할과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태선기자

사회복지시설 · 기관 종사자 대상 힐링캠프

유성구 누적된 스트레스 해소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정수)는 8월 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북 충주 명상치유센터(깊은 산 속 옹달샘)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 35명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힐링캠프는 기존의 강의나 토론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종사자들의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만남과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됐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시설종사자는 "평소 업무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자연속에서 명상, 체조, 걷기 등으로 풀어주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주민과 직접 부딪치면서 소통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에 정말 필요한 시간이며, 이 분들이 다시 근무하는 시설로 돌아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동구형 일자리창출 워크숍

네트워크 활용 지역일자리 확대 공동방안 모색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자리창출 전략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30일 대전대학교 링크사업단과 동구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전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대학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해 개별적인 사업추진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했던 사업들을 보완하고 공동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고용동향 정보에 대해 상호교류하고 산 · 관 · 학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구 관계자는 "지역의 일자리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호 간의 협업을 통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구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3개월간 채권압류 ·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처분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자주재원확충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을 2017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7월말 기준 886억 원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부담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순이다.

총 체납액의 14.9%인 132억 원을 징수목표로 하여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미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 · 추심하는 한편,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실시간 통합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과태료는 체납 시 최초 가산금 3% 이외에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5년간 가산되기 때문에 체납기간이 길면 길수록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다.

체납액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납부를 비롯해 위택스, 가상계좌번호, ATM(은행자동입출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올해 도입된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화 한 통화로(ARS : 042-720-9000) 대전시 및 5개 자치구의 각종 체납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과태료 등 체납액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하여 시민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2017 대전 사회조사 4일부터 실시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시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나눔 시정 운영을 위해 4일부터 24일까지 '2017 대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5000가구이며, 이중 ▲ 동구 930가구 ▲ 중구 920가구 ▲ 서구 128가구 ▲ 유성구 105가구 ▲ 대덕구 820가구를 조사원이 방문해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가족, 주거 · 교통, 교육, 노동, 사회복지, 소득 · 소비, 공동체 부문에 대해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대전의 행복나눔 시정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 맞벌이가구별 등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청년세대의 일자리 및 행복도와 늘어나는 1인가구 삶의 질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위한 대전시민의 정책 수요 등을 집중 조사하여 살맛나는 대전으로의 체감도 높은 시정을 펴는데 중요한 정보가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는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을 활용해 통계작성 전 과정의 표준화는 물론 조사 진행, 입력, 자료처리,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 예산절감 및 정보보안 등 신뢰성을 강화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결과는 오는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 사회조사는 시민의 생각을 듣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시정의 기본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성장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조사에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히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당진시 2017년 지방재정 공시

지방채 · 보전수입 등 지난해 살림규모 2015년 대비 1124억 원 증가

당진시가 시의 살림 규모를 알 수 있는 2017년 지방재정을 지난달 31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2017년 지방재정공시는 2016년 결산을 기준으로 결산 규모와 재정여건, 부채 등 결산공시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으로 작성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자체수입과 이전재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합한 2016년 시의 살림규모는 1조 355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124억 원 증가했다.

이 수치는 당진시와 인구가 비슷한 서산시, 목포시 등 전국 19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8813억 원보다 1542억 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시의 자체수입은 2,479억 원이며, 주민 1인 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08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당진시의 채무액은 359억 원으로 이를 시의 인구로 환산하면 주민 1인당 지방 채무액은 21만 6,000원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은 살림살이 규모가 크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채무가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매년 감소되고 있고, 자체수입도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기타 2017년 지방재정공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재정공시를 통해 8월 31일 오후 3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올해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아산시는 올해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지가열람 및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접수한다.

대상필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5,03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은 가까운 읍 · 면 ·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지가를 열람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능하며, 인터넷(http://www.asan.go.kr)에서도 열람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540-2289)로도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제출 된 토지는 담당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오는 10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국세 ·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금액으로 보상이나 담보 가치와는 다른 성격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조사 및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롯데百 대전점 가을패션 제안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김윤중)은 9월의 첫 주말을 맞아 다양한 가을상품 행사를 마련하고 주말 쇼핑 고객들을 맞이한다.

9층 특설매장에서는 휠라, 카파, 노스페이스영, 스코노 등 스포츠 브랜드들이 점퍼, 긴팔티셔츠, 바람막이 등 가을 인기아이템을 20~30%할인, 판매하는 '스포츠 가을패션 제안' 행사가 열려, 노스페이스영 바람막이점퍼를 7만원에, 휠라 맨투맨티셔츠를 6만9000원에, 카파 기능성 티셔츠를 3만9000원에 판매한다.

헤비다운점퍼, 아웃도어 재킷 등을 선보이는 '코오롱스포츠&K2 사계절 상품전'에서는 코오롱스포츠 스노우볼 다운점퍼를 44만원에, K2 헤비다운점퍼를 25만9000원에, 바람막이 재킷을 5만9000원에 판매한다.

그리고, 피그먼트, 반에이크 등 영스트리트 브랜드들이 재킷, 카디건 등을 제안하는 '가을상품 제안' 행사가 펼쳐지고, '구두 가을상품전'에서는 엘칸토 남성화와 여성화를 각 6만9000원에, 에스콰이아 남성화를 9만9000원에 판매한다.

지하1층 행사장에서는 써모스, 실리만, 풍년, 세사, 스위트홈 등 주방용품과 침구홈패션 브랜드들이 참여하는 'Living 가을득템 상품전'이 펼쳐져, 다양한 주방조리기구와 가을침구류를 선보인다.

써모스 텀블러를 3만9000원 균일가로 판매하고, 풍년 스텐냄비류를 30~50%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스위트홈 아사워싱세트 50%할인, 판매하고, 차렵을 3만9000원과 4만9000원 특가로 선보인다.

5층 남성패션매장에서는 '남성패션 가을상품 제안'행사가 열려, 남성 정장, 캐주얼, 셔츠 등 가을상품 구매시 구매금액대별 약 7%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를 진행하고, 새롭게 매장을 오픈한 남성캐주얼 브랜드 피플(FYFL)과 나우(NAU)에서 할인판매, 감사품 증정 등 신규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

송병배기자

수소로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 충남서 시동

태양광으로 수소 생산하고 수소차 대여…전국 최초 '시동'

태양광 발전으로 수소를 생산해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에 공급하고, 이 수소차를 카셰어링에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와 공유경제가 결합한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이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시동을 건다.

도는 아산시, 도원피엔비와 공동으로 마련한 '스마트 수소충전소 구축 연계 카셰어링 사업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2017년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년까지 8억 원을 투입해 수소를 자체 생산 · 공급 할 수 있는 스마트 수소충전소 1기를 설치하고, 수소차 두 대를 구입(추후 10대)한 뒤, 수소 판매 및 차량 대여로 수익을 창출하는방식이다.

우선 수소충전소는 하루 동안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 20㎾와 심야전력 9㎾로 물 32㎏을 전기분해해 35㎏의 수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 총 30㎏ 규모의 수소를 저장하고, 수소차에 대한 공급(충전)까지 가능하다. 도는 이 수소충전소를 내년 아산 지역에 설치하고, 주중 관공서 업무용으로, 주말과 휴일에는 관광객 대여용등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완충에 필요한 수소는 5.4㎏이다. 스마트 수소충전소를 통한 수소 1㎏ 생산 원가가 200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판매가가 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소차 1대 완충 시 1만 6200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완충 판매가 2만 7000원 - 생산원가 10800원 = 1만 6200원

카셰어링을 통해서는 수소차 1대당 1개월에 100~2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수소차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보급 확산, 수소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설치할 수소충전소는 작고 간편하며, 상용화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1㎏ 당 7000원 대인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공급 수소에 비해 가격이 훨씬 싸고, 수소차 셰어링 역시 사용료가 저렴해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유경제와 친환경 에너지를 결합한 이 사업은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 차량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소차는 외부 공기와 저장 수소의 반응으로 자가발전 주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오염물질 없이 물만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의 친환경자동차'로 불리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의 99.9%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수소차 1대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SUV 2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수소버스는 40~50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수소차는연간 1.9~2.1톤의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전기자동차에 비해 운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은 짧다. 도는 지난해 '수소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육성'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로트캡션 2017 대전국제와인페어 참가

전 세계 판매 1위 스파클링 와인 브랜드 로트캡션 · 국내 팬들과 소통의 장 열어

인디펜던트리쿼코리아의 스파클링 와인 브랜드 로트캡션이 1일부터 3일까지 대전무역전시관 및 엑스포 한빛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2017 대전국제와인페어'에 참가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전국제와인페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품평회인 아시아와인트로피와 연계한 국내 대표적인 와인 전문행사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와인 전문가 대상의 국제 와인 품평회와 국가대표 소믈리에 경기대회, 야간 문화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 세계 판매 1위 스파클링 와인 브랜드 로트캡션은 모던하고 심플한 콘셉트의 단독 브랜드 부스로 로트캡션만의 현대적인 감각과 정돈된 이미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로트캡션 무드의 브랜드 바에서는 로트캡션의 정통 스파클링 와인인 브뤼(Brut), 스플렌디드(Splendide), 로제(Rose) 3종과 저알콜 스위트 스파클링 와인 로트캡션 라임, 로트캡션 망고, 로트캡션 석류 3종을 모두 만날 수 있다.

또한, 피크닉 분위기로 꾸민 포토존에서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현장 사진을 업로드하는 고객 대상으로 즉석 사진 촬영 이벤트를 제공한다.

로트캡션 관계자는 "대전국제와인페어는 와인 시장의 소비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행사이니만큼 로트캡션의 달콤하고, 감미로운 풍미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참가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트캡션은 전 세계 스파클링 와인 판매 1위(2016년 기준, IWSR(국제주류연구소) 브랜드로, 1856년 독일에서 탄생했다. 유럽시장에서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 좋은 스파클링 와인으로 손꼽힌다.

알코올 도수 11도의 정통 스파클링 와인인 브뤼(Brut), 스플렌디드(Splendide), 로제(Rose) 3종은 과실 본연의 상큼함과 감미로움으로 국내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더불어 알코올 도수 8도의 저알콜 스위트 스파클링 와인인 로트캡션 라임, 로트캡션 망고, 로트캡션 석류 3종은 아름다운 버블과 신선한 과일의 풍미, 달콤함으로 여성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송병배기자

대전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제 1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평생교육원(원장 박계홍 교수)이 내달 15일까지 '제1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위한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이번 교육은 내달 23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주 1회 교육을 목표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상담의 원리 및 기법과 심리적, 법률적, 의료적 지원 등 총 100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료자에게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을 수여함과 동시에 가정폭력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게 된다.

접수는 다음달 15일까지 학력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방문 접수가 진행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대학교 평생교육원 둔산캠퍼스(042-470-9390)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평생교육원에서는 지난 26일 대전대 둔산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수강생 6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에 대한 수료식이 진행됐다.

이정복기자

내년부터 신규 계란 농가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부처별 핵심정책토의에서 방안 보고

살충제 계란파동 재발 방지와 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의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내년부터 신규농가에 EU기준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농가는 개방형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직불금과 시설 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내년부터 농장의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2019년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이력표시제를 도입한다.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과 판매 의무화 및 난각 표시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의 예방 차원의 사전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검사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 10월부터 심각단계 수준의 AI 방역을 시행하고 신고시 119와 같은 신속방역 출동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쌀 수급안정과 쌀값회복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α)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2018년 5만ha, 2019년 10만ha)해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로 했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과 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 수준 가격 보장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실거래가의 52% 수준인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등 농업재해보험 개선을 추진한다.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농촌만들기 방안도 만들어졌다.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생활안정 자금(월 100만원),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 농업을 확산해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농고와 농대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2016년 390명 → 2018년 550명)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산업, 산림·치유 및 정원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반려동물 미용·돌봄·장묘 등 서비스업과 나무의사·원예치료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산업법을 내년에 제정하기로 했다.

김영록 장관은 "올해 하반기 쌀값 하락 및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안전문제,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 대비해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갤러리아타임월드

가을맞이 행사 진행

갤러리아타임월드(대표이사 황용득)에서는 층별 매장 및 행사장에서 가을맞이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우선 7층에서는 골프웨어 행사가 1일-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골프웨어 행사에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3개 대회 우승을 거머쥔 한화골프단 김지현 프로골퍼와의 '꿈의 라운딩'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 당일 갤러리아카드/멤버십카드로 7층 골프 브랜드에서 구매시 참여 가능하다. 갤러리아 전지점에서 총 3명에게 행운을 드리는 이번 "꿈의 라운딩" 이벤트는 12일, 오전 11시, 3층 사은품데스크에서 추첨을 진행해 행운의 주인공을 선정한다. 이와 더불어 골프웨어 2대 브랜드 가을 이월상품전이 보그너, LPGA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7층 골프행사장에서 열린다.

송병배기자

계룡장학재단, 2017년 3/4분기(제99회)장학금 지급

윤종설 계룡장학재단 이사장은 8월31일 90명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2017년도 3/4분기 장학금 66,533,600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한 장학금은 2017년도 전체장학금 187,134,400원 중 일반장학금 제 3 회분으로 온라인으로 송금 지급되며, 92년 12월 재단 설립 이래 이번 회까지 지급된 장학금의 총 규모는 연인원 14,287명 장학금 5,528,481,801원에 달한다.

계룡장학재단은 장학사업 이외에도 광개토대왕비 복제비 건립사업을 비롯하여, 일본구주지역의 백제문화유적탐사 사업, 백야 김좌진 장군 추모사업, 독도 우리 땅 밟기 사업, 류관순 열사 전기발간 지원사업, 三學士碑 중건사업, 백제문화제 봉수대건립사업,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 후원사업, 벽지학교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장학금 지급, 학교폭력 예방대책 후원, 독도 정주민 후원사업 등과 효자, 효부, 장한 어버이들과 충·효·예를 묵묵히 실천해 온분들을 발굴 시상하는 유림경로효친대상, 대전지역 초등학생들이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제정한 유림공원사생대회 등 수많은 역사, 문화사업을 통해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과 공익기여에 최우선으로 매진하는 중부권 유수의 중견장학재단이다.

김태선기자

'선문북카페라운지 물품' 기증

선문대, 아산역에 기증…열차 이용객 모두 위한 공간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가 아산역에 '선문북카페라운지'를 기증했다. 이곳은 9월 1일부터 선문대 구성원 뿐 아니라 열차 이용객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북카페'는 2012년 통학·통근하는 선문대 학생과 직원 복지를 위해 아산역 1층에 설립된 이후 책을 무료로 빌려주는 등 편의제공으로 사랑을 받았다. 5년 계약이 만료된 8월, 선문대는 공간을 비롯한 내부 물품 전부를 역에 양도했다.

선문대가 아산역에 기증한 물품은 책을 비롯한 에어컨, 대형 TV, 정수기, 책상 및 의자 등이다. 지난 8월 30일 김범성 홍보대외협력처장(선문대)과 이희제 역장(아산역)은 '기증서'에 서명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김범성 홍보대외협력처장은 "우리 대학 구성원이 만족하며 머물렀던 그대로 주민들과 편의를 나누고자 기증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주산학(住·産·學)글로컬 선도 대학으로서 지역 사회에 공헌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희재 역장은 "선문대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물품을 기증해줘서 감사하다"며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거나 TV, 컴퓨터를 보며 쉴 수 있는 이 휴게공간을 많이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캄보디아 지역개발부와 '수직형 정수처리 실증시설' 구축 협약

K-water, 수직형 정수처리 시설 2020년까지 완공 계획

K-water(사장 이학수)는 2017. 8. 30(수) 현지시각 10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지역개발부와 '수직형 정수처리 실증시설'을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캄보디아의 대표적 휴양지인 카엡(KEP)州에 일일 용량 500㎥ 규모의 수직형 정수처리 시설을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직형 정수처리 시설은 막여과, 활성탄흡착 설비 등을 빌딩 건축과 같이 수직으로 배치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이며, 각각의 정수 설비를 층별로 배치하고 물을 끌어 올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정수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기존 정수장 대비 시설 면적은 50%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은 30%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상은 물론 지하에도 적용이 가능해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시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수 있으며, 기존의 정수장은 각각의 정수 설비와 물을 담아두는 저류조를 배치하기 위해 넓은 면적이 필요하며, 정수 과정마다 저류조에서 물을 끌어와 펌프 등에 의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

특히, K-water는 14년 1월 충청북도 청주시에 일일 1,000㎥ 처리용량의 수직형 정수처리 실증시설을 준공해 검증을 완료했으며, 국제물협회(IWA)로부터 프로젝트혁신상을 수상해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K-water 이학수 사장은 "캄보디아 진출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한 정수처리 기술이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물 시장에 진출하는데 이번 민-관 협력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1·3세대 공감 프로그램 '반려식물' 만들기 당진시 노인복지관(관장 이병하)은 지난달 30일 당진시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한 반려식물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는 계성초등학교 학생들과 당진시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이 함께하는 1·3세대 공감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공주시민대학, 김병조 교수 강연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지혜' 주제 강연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오는 9월 5일 저녁 7시 고마 컨벤션홀에서 김병조 교수를 초청해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 제36강 교양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교양강좌는 명심보감 강의로 유명한 코미디언 출신 김병조 교수의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지혜' 라는 주제로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명심보감의 명언들을 김 교수 특유의 입담과 재치를 이용, 선조들의 지혜를 들려주는 감동과 웃음이 가득한 강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조 교수는 1980년대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국민 MC 겸 최고의 인기 개그맨으로 '지구를 떠나거라' 라는 유행어를 히트시킨 주인공이다.

1998년부터 조선대 평생교육원에서 명심보감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학자이자 명 강연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제1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문화부장관 표창, 방송80주년 방송유공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명예원장, 광운대학교 한국적 인식론 강의로 활동 중이다.

한편, 공주시민대학 제37강 교양강좌는 양소영 변호사를 초빙해 '황혼부부 리스크 관리법' 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7일 고마 컨벤션홀에서 부부의 위기와 위험요소를 소개하고 갈등을 현명하게 대처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주=정상범기자

ETRI, 새통사 100회 돌파

31개월간 매주 소통강연에 1,500여명 참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대표 연구기관에서 자유로운 연구 및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운영중인 모임이 100회를 돌파해 관심이 주목된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서로 다른 ICT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연구 소모임(AOC)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모태 격인 '새통사'가 오는 1일 1백회를 맞이한다고 밝혔다.

새통사란 '새로운 통찰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라는 뜻의 모임으로 도래하는 초연결시대 본질에 대해 통찰하면서, 다가오는 디지털혁명에 도전하는 기술을 탐색한다는 목표로 운영중이다.

새통사는 지난 2015년 1월, '새로운 통신방식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라는 이름으로 첫 모임을 시작했다. 광범위한 패러다임의 변화의 통찰을 얻고자, '새로운 통찰을 생각하는 사람들' 로 명칭을 바꿨다.

그동안 새통사에서는 서로 소통하며 지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매 모임마다 분야와 소속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전공의 강연자를 초청해 왔다.

대표적인 강연의 화두로는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세상의 패러다임을 움직이는 기저는 무엇일까? ▲인간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변할 수 있나? ▲미래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등이 있다.

또한, 새통사는 강연을 진행하고 서로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한 뒤 강연 후기를 남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언론사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이한 점은 새통사 활동 중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추진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뇌를 자세히 공부하는 '뇌과학 프로그램' 과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ETRI 빅히스토리 학습 프로그램' 개설이 대표적이다.

이정복기자

브라질에서도 한국식품 따 봉!

aT, 브라질 Korea-Brazil 푸드비즈니스 매칭 페어행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브라질 시장개척단 파견사업과 연계해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양 일간 '한식 쿠킹쇼' 와 'Korea-Brazil Food Business Matching Fair' 를 개최했다.

주브라질 한국문화원(원장 권영상)이 후원한 이번 행사 중 '한식 쿠킹쇼' 에는 브라질 유명 요리학교 교수와 외식업계 종사자, 주요 현지 언론사, 바이어 등 오피니언 리더 80여명이 참석했다.

장류·면류 등 시장개척단 참가업체의 주요 제품을 활용해 한식 요리를 시연·시식했으며, 즉석 품평을 통해 업체들은 브라질 시장 진출 전망성을 타진했다.

권영상 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식은 흔히 장맛인데 오늘 그 비결이 담겨있는 장류들이 소개되니 눈여겨보시고 우리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입소문을 많이 내달라."고 현지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에스콜라 미식요리학원 에릭 알렉산드라 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평소 생소하게 생각했던 한식과 한국 농식품을 직접 체험해보는 좋은 기회였고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9일 개최 된 'Korea-Brazil Food Business Matching Fair' 에서는 8개 수출업체와 현지 바이어 간 '1대1 매칭 수출상담회' 가 이루어졌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수입상, 대형유통업체 등 브라질 현지 23개업체가 참석해 한국 농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송병배기자

예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의사결정 훈련 실시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30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예산군 삽교읍 소재 ㈜엘엠에스에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이 필요한 가상 상황을 부여했다.

공주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공주교도소(소장 정영진)는 지난 31일 출소를 앞둔 수형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출소예정자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천안 준법지원센터, 온양5동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펼쳐 아산시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공동단장 심흥섭, 강연식)은 지난 30일 온양5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 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홀몸 어르신댁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청양경찰, 교통안전수칙 마을방송 청양경찰서(서장 남경순)가 교통사망사고예방을 위한 총력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비봉파출소(소장 박경호)는 농촌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수칙을 자체 제작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마을방송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아산서, 충무병원과 치안네트워크 MOU 체결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지난 30일, 아산충무병원과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산소방서, 방송통신시설 특별조사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9월 한달 간 운동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11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나 혼란이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적정설치 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계인의 자율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소방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시행하는 조사의 중점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사항 및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무허가 위험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다.

서산=김정한기자

농어촌 민박이라더니… '불법펜션' 다수 적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표본 점검 결과 33% 위법행위 발견

농어촌 관광 활성와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민박은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해야 하고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 내에서 부속 1개 동만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 등이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불법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고가의 숙박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6~7월 경기 가평 · 양평, 강원 고성 · 홍천, 경남 통영, 인천 강화 등 10개 지자체의 농어촌민박 4492개 중 2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329%인 718개 민박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농어촌민박은 작년 기준 전국 2만 5026개가 신고돼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5341개로 가장 많고 전남 3451개, 경남 3394개, 제주 2822개 순이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가 총지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기금 가운데 관광사업 발전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펜션에 지원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운영 상황을 검증하던 중 농어촌민박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자연보호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고는 불법 펜션 영업을 해온 것이다.

이들은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을 통해 리조트, 펜션 형태의 고가 요금의 숙박시설을 건축 ·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시단은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시도 감사실과 공동으로 10개 지자체 표본점검을 통해 718개 민박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무단용도변경 182%(397개)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 7.8%(171개) ▲실거주 위반 6.9%(150개)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민박 중 126개는 무허가 · 미신고 물놀이 시설을 운영했다. 2m 초과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물놀이 시설은 시 · 군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고 그 이하 물놀이 시설은 신고를 해야 한다.

물놀이 시설은 설치 시 안전성 검사를 받고 수질 기준을 지켜야 하며 시설규모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무허가 · 미신고 물놀이 시설은 이 같은 규정을 모두 무시했다.

강원 고성군은 203개 농어촌민박 중 49.7%(101개), 경기 가평군은 599개 농어촌민박 중 43.1%(258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기초 지자체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 · 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에 대해 개선 명령,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대부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또 전국 농어촌민박 중 182개는 관광펜션으로도 지정받았는데 이 중 29개(15.93%)는 농어촌민박이 불법 변형된 것으로 문체부로부터 총 108억원의 관광진흥기금까지 융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은 전액 회수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이번에 적발한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형사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전국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도 시행한다. 아울러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새올)에 농어촌민박사업 자료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민박사업 신고, 운영, 점검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소방 · 위생 · 안전 · 용도변경 등에 관해 분기마다 소방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시 해당 지역 전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신고 후 주민등록을 옮기고 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농어촌민박 신고요건을 전입 후 2년 이상 실제 거주자로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 시 농어촌민박 상징 로고를 부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 신고 시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3~5일 이내'로 개정하고 신고서 접수시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실사도 의무화한다.

농어촌민박으로 관광펜션 지정을 받는 경우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한도를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인 230㎡ 미만 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로 제한할 방침이다.

당진소방서, 9월 소방 특별조사 실시

당진소방서(서장 방상천)가 9월 한 달간 관내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 등 소방대상물 38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위반사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에 포함된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 적합성 여부등이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통해 화재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의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화력 9 · 10호기 온배수 인한 어업 피해보상 설명회

성일종 의원, 주민들과 서부발전 사이의 가교 역할

성일종 의원은(자유한국당, 충남 서산 · 태안) 31일(목) 오후 2시 태안군 이원면 복지회관에서 서부발전(주) 태안화력본부 9 · 10호기의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서부발전 김재환 태안화력본부장을 비롯해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이원 · 원북 · 소원 이장단협의회 등 주민 2백여 명이 참석했다.

태안화력본부 설립 이래 국회의원이 참석한 보상 관련 최초 설명회로 성일종 의원이 주민들과 서부발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다.

그동안 태안화력과 주민들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소통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서로 간의 오해를 푸는 자리가 됐다.

성일종 의원은 "그 동안 국회와 지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온배수 피해보상 관련 간담회를 가졌지만 전체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설명회 자리는 처음인 만큼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보상안 마련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공주경찰서 '계란 팔아주기 운동'

계란 생산 농가 피해 최소화 및 계란 소비 촉진 앞장

공주경찰서(서장 육종명)는 지난 31일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란 생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란소비 촉진을 위해 '계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계란 소비가 급감하고 여름철 고온으로 인하여 계란을 폐기처분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계란 생산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자 우리지역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은 산란계 농가와 직접 연계하여 계란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했다.

이번 계란 팔아주기 운동은 공주서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계란 377판을 구매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시,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 실시

올해부터 생후 6개월~59개월 어린이로 대상 확대

아산시는 생후 6개월~12개월 영유아에게 접종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올해부터 생후 6개월~59개월 어린이로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4일부터 지정 병의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 병의원은 40곳으로 아산시 관내 대부분의 소아과에서 접종 가능하다. 연령대별로 1회 접종, 2회 접종 대상으로 구분해 접종한다.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 이른 접종이 필요한 2회 접종대상 어린이는 9월 4일부터, 1회 접종대상 어린이는 9월 26일부터 시행하며 종료일은 2018. 4. 30일까지로 동일하다.

지정 병 · 의원은 아산시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 도우미(http://nip.cd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전인 9월~10월 사이 겨울철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가까운 지정 병의원에 방문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몰래카메라 등 휴가철 불법수입 물품 기획단속

자동차 Key형, 손목시계형, 안경형 등 9종 764점 적발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지 내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속칭 몰래카메라로 불리우는 초소형 디지털캠코더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몰래카메라 764점을 불법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전자기술의 발달로 디지털캠코더의 초소형화 및 고화질 영상촬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를 악용,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적발된 몰래카메라 형태는 자동차 Key, USB, 안경, 전자 탁상시계,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타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으로 외관상 몰래카메라임을 알 수 없어 몰래 촬영 등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기 쉬운 제품들이다.

주요 단속사례는, A씨(남, 47세)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하여 몰래 카메라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이나 샘플(Sample)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몰래카메라 362점을 밀수입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몰래카메라 기획단속과 함께, 휴가철을 맞아 캠핑 · 바캉스용품 등의 불법수입 · 유통을 근절하고자 '휴가철 생활 · 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휴대용 선풍기 부정수입 등 39건, 310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몰래 카메라 등 국민생활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수입물품 · 유통 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봉관기자

도로교통공단,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 위해

'일자리 창출 기관장 모니터링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대행 정순도)은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기관장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 모니터링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사장대행이 직접 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전사적으로 추진 · 독려 하는 한편, 정책 수행 과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격주마다 각급 부서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사장대행 주재로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 보고회를 열기로 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트롤타워 총괄책임자도 이사장대행이 직접 맡았다.

송병배기자

‘구직자 88%, 중소기업 지원할래’

<사람인>조사결과… ‘취업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첫번째로 꼽아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는 구직자 10명 중 9명은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하반기 중소기업 지원 의향’에 대해 구직자 3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9%가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려는 이유는 ‘취업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41.6%, 복수응답)를 첫번째로꼽았다. 다음으로 ‘자격 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워서’(36.2%), ‘괜찮은 알짜기업도 많아서’(35.9%), ‘회사규모는 관계없어서’(32.3%),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24.6%), ‘경력을 쌓기 위해서’(21.9%)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근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12.3%), ‘승진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7.8%), ‘성과 압박이 덜할 것 같아서’(7.5%), ‘근무 강도가 약할 것 같아서’(4.8%) 등이 있었다.

입사 지원할 중소기업을 고르는 기준은 ‘연봉’(51.2%,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출퇴근 거리’(49.1%), ‘복리후생’(47%), ‘안정성’(42.8%), ‘성장 가능성’(33.5%), ‘조직 문화’(26.6%), ‘직무’(22.5%), ‘CEO 및 경영진’(10.5%)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 지원 시 희망하는 연봉수준은 평균 3,109만원으로 집계됐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평균 2,527만원), 2, 3년제 전문대학(2,866만원), 4년제 대학(3,036만원), 대학원 이상(3,973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올 상반기 중소기업에 지원해 본 경험이 있을까?

상반기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329명) 중 67.8%는 입사 지원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96.4%는 중소기업 지원 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려움으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45.1%, 복수응답)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채용공고 내용 부실’(41.9%), ‘지원 후 결과 확인 어려움’(38.6%), ‘성별, 연령 등 차별 조항 있음’(37.2%) 등을 들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62.4%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해, ‘부정적이다’(37.6%)보다 높았다. 특히, 중소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7.1%가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생각이 바뀐 이유로는 ‘알짜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 증대’(53.5%,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중기 취업자에 대한 혜택 증가’(34.6%), ‘성공한 중소기업 출신 인물 증가’(23.9%), ‘중기 취업한 주변인들의 추천’(20.8%) 등을 들었다.

이정복기자

자유학기제 지원 ‘진로직업체험 한마당’

부여교육지원청,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창조적 주인공 성장 기여코자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은 9월 1일부터 2일까지 부여유스호스텔에서 ‘2017 진로직업체험 한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부여교육지원청과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이 주최하고 부여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창조적 주인공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1일차에는 자유학기제 대상학년인 부여군 중학교 11교의 45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유형별 체험부스 17개 기관 ▲공공기관 직업체험부스 5개 ▲4차 산업혁명 관련 체험부스 5개 ▲진로직업설계 상담부스 등 40개 기관 부스가 참가해 직업체험 및 진로상담이 이루어진다.

이어서 다음 날에는 ‘부여군 청소년 어울림마당’으로 1일차 프로그램과 동시에, 청소년 예술문화 공연도 함께 어우러져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된다.

부여 =김태선기자

당진교육지원청, 특수 교육 공동체 연수 실시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본청 대강당에서 관내 유·초·중등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35명과 특수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공감 특수교육 지원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특수교육공동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특수교육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특수교육 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자리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이 날 강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인권보호 및 가족지원’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공동체 연수’라는 주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임준호 소장과 선문대 이왕호 강사를 초청해 이루어졌다. 당진 =최근수기자

이심훈, 제32대 아산 교육장 취임

아산교육지원청 제32대 이심훈 교육장이 취임했다.

공주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출신으로 1982년에 교육계에 입문한 이후 학교경영과 교육 행정을 두루 섭렵한 교육전문가이다. 교사로 20여년을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의 변화를 선도했고, 교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알찬 학력과 체험적 감성을 중심으로 인성과 창의성을 융합하는 학교경영을 했다.

취임에 즈음하여 "선현들의 올곧은 선비정신의 발현지이면서 첨단산업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유서 깊은 아산의 온화한 샘터에서 교육 가족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존감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정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산 =리량주기자

대전교육청,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확대 ‘친환경생활 실천’

4개 기관, 노후화된 자동차 하이브리드카로 교체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시교육청,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원, 교육과학연구원 등 4개 기관의 노후화된 자동차를 하이브리드카로 교체하는 등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차) 구입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며, 내년에는 하이브리드차 외에 주행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차 등의 구매를 확대해 에너지절약은 물론 대기오염 및 지구온난화 물질 감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그동안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 보호 및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해 9월 1일 개교하는 선유초에 전력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로 시공하여 녹색건축물 우량 인증을 받아 친환경 친화 시설을 완비했다.

또한, 각급학교에서 친환경 녹색 제품 구매, 친환경 우레탄 운동장 조성, 친환경 농산물 구입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 등을 추진해 왔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하이브리드카 구입으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줄어들어 대기질 개선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친화적 생활 실천에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2017 흥과 멋이 있는 교원 국악 연수

예산교육지원청, 흥과 멋으로 신바람 나는 유치원·특수교육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은 8월 31일에 민족음악원에서 유치원교사, 초등특수교사를 대상으로 2017 흥과 멋이 있는 교원 국악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국악 연수는 지역문화예술기관인 민족음악원과 관내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모색했고 기초기본교육의 시작인 유치원 교육에서 우리나라 전래 놀이 및 국악 동요를 배움으로써 유아들과 초등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전래놀이와 국악동요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었다.

국악 연수는 ▲한국의 장단 알아보기 ▲장구, 북 장단 쳐보기 ▲국악동요 및 민요 부르기 ▲장단에 맞춰 국악동요 및 민요 부르기 ▲길쌈놀이 ▲강강술래를 교사들이 직접 해봄으로써 유치원교육과 초등특수교육 현장에서 유아들을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산 =양성업기자

최교진 교육감, 캐나다·멕시코·쿠바 교육기관 탐방

각 국가의 교육혁신과 교육개혁 방향 탐구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오는 9월 4일(월)부터 17일(일)까지 14박 15일의 일정으로 캐나다, 멕시코, 쿠바를 방문하여 각 국가의 교육혁신과 교육개혁 방향 탐구, 자매결연 추진 등 교육협력 활동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첫 방문지인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전 세계적 교육혁신 모델을 주도하고 있는 온타리오 주 교육부를 방문하여, 온타리오 주가 새롭게 설정한 교육 비전과 정책 실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오타와-칼튼지역교육청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세종시 관내 학교와오타와지역 학교의 자매결연, 교사교류 등 오타와의 국제교육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교류 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문시 세종특별자치시시에 대한 소개를 통해 캐나다 행정수도인 오타와와 대한민국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향후 교류 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일정인 멕시코·쿠바 방문은 해외 교육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미래교육 발전방향을모색하고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부산·전북 교육감이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2015년 PISA(국제학업성취도 평가) 학생 웰빙보고서 학생 삶의 만족도 1위 국가인 멕시코와 세계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순위(GDP 대비 10~12%)가 가장 높고 식자율(읽고 쓸 수 있는 비율)이 100%로 2004년 유네스코 발표 교육모델 선정국가인 쿠바의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공교육 혁신 등 교육개혁 흐름과 정책개발 관련 내용 등을 탐구할 예정이다.

멕시코의 교육부·학교, 쿠바의 학교 등을 방문하여 각 나라의 교육제도와 지방교육현장에서 구현되는 개별 교육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지방교육자치, 학교자치의 발전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세종시에 미래지향적인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세종 미래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향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정복기자

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학교상담자 전문성 향상 연수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련)은 지난 29일 Wee센터 집단상담실에서 관내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정서행동 업무담당교사 등 20명을 대상으로 GRIP(그립)도구를 활용한 게슈탈트 관계성향상 연수를 실시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UCC·사진·표어’ 공모전 진행

새마을운동중앙회 “아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소진광)는 행전안전부 후원으로 오는 22일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한 UCC·사진·표어 공모’ 행사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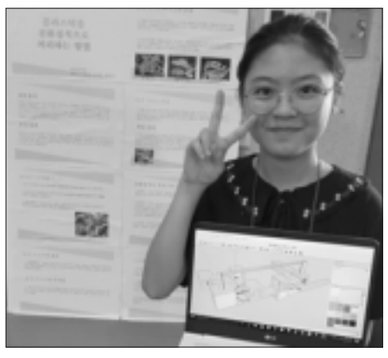
이번 UCC·사진·표어 공모는 인구절벽시대에 직면한 우리 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인식개선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공모분야는 UCC·사진·표어 3개 분야로 응모 주제와 응모 규격은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www.saemaul.or.kr)의 참여·소통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응모방법은 홈페이지에 직접 참가 신청을 하고 동영상과 사진 파일은 이메일(contest@saemaul.or.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응모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상(3명), 새마을운동중앙회장상(21명) 등 표창과 총 1210만원 상당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아울러 오는 12월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의 우수사례발표 및 평가보고대회 시 시상할 예정으로 수상 작품은 저출산 인식개선 등 공익적 사업에 활용된다.

송병배기자

주산산업고, 무료급식시설에 직업교육 거점학교 생산품 전달 지난 30일 주산산업고등학교(교장이신호)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보령시 동대동에 위치한 대천중앙감리교회(담임 박세영 목사)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시설에 학교에서 생산한 견과류 제품을 전달했다.



서산 대산중, YSC 캠프 참가 금상 수상 서산 대산중(교장 김태영) 2학년 박현영, 오채연, 최유나 학생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되는 YSC 캠프를 참여해 금상을 수상했다.

“꿈·열정·감동이 있는 신명나는 공주교육 만들겠다”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 교육장 부임

공주교육지원청 제32대 교육장으로 유영덕교육장이 9월 1일자로 새로이 부임했다.

“꿈·열정·감동이 있는 신명나는 공주교육을 지향하며 교직원의 열정을 바탕으로, 학생은 꿈을 이루고, 교육가족에게는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영덕(60.사진) 교육장은 취임소감을 이 같이 밝히고“첫째 공부가 즐거운 학교, 삶을 즐기는 학생, 참되고 바른 인성교육에 앞장서겠으며, 둘째, 성취와 보람을 함께하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 셋째 교육가족의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며, 함께 만들어가는 으뜸 공주교육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교육장은 공주 출신으로 공주고등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2년 소원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당진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성환초등학교, 천안신촌초등학교 교감, 신방초등학교, 천안청룡초등학교 교장,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관, 소망초등학교 교장 등 주요직을 두루 거친 교육전문가이다.

유영덕 교육장은 교직원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고 원칙을 존중하며 온화한 리더십을 발휘해 그동안의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공주교육 발전을 위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주 =정상범기자

천안교육지원청Wee센터 ‘사랑충전소, 희망응원단’ 부스 운영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임완묵) Wee센터는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생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해 30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생명사랑 홍보 부스 ‘Wee 사랑충전소, 희망응원단’을 운영했다.

●동 정●●●

신규임용예정공무원 특강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1일 오후 2시에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신규임용예정공무원 기본교육과정 특강』에 참석.

제44회 시의회 제1차 본회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1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에서 열리는 「제44회 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홍성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김석환 홍성군수= 1일 오전 10시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되는 홍성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참석.

충남도 일본 백제역사탐방 진행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원장 장기수)에서는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3박 4일 간 2017 충청남도 내 거주 및 재학 중인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백제역사탐방을 통해 일본(오사카,교토,나라) 지역으로 직접 민족 문화의 정신과 기상을 체험하는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8월27일에 진행되었던 1차 사전교육에 이어, 9월2일~3일에 2차 사전교육 진행 후, 탐방을 떠날 예정이며 사전교육에서는 탐방 관련 안전 교육과 청소년들의 관계 형성 프로그램 및 백제 이해교육이 진행된다.

이 활동은 사전에 진행되었던 역사교육을 바탕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역사탐방 활동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 도모하며, 현지 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다원주의적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을 키워 건강한 글로벌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군 추천을 통해 최종 선발된 도내 청소년 40명과 지도자 3명으로 구성되어 찬란한 백제문화 유산이 남아있는 오사카·교토·나라 지역 일대를 돌아보며 백제왕신사 및 왕인박사묘, 광륭사, 아스카사 등과 같은 백제 선조들의 얼이 살아 숨쉬는 유적지를 탐방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월례회의

예산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충남도 내 12명의 시장 및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군 홍보영상물 상영 △지난 회의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이번 회의 건의사항 설명 △시군별 주요 현안 설명 및 협조사항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충남도 시장 및 군수들은 지난 2월 홍성군에서 개최된 회의 시 건의된 '살처분 및 매몰비용 국가부담 개선',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 자격 개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취했다.

이어 충청남도 관광공사 설치를 비롯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예산지원,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신속 추진 및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관련 지역 의견 반영 등 4건의 건의사항을 중앙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오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제28회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를 비롯해 각 시군별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예산=양성업 기자

'세종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민간부분 확대… 법적 기반 마련 필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 소속 윤형권 의원 주관으로 30일 오후5시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세종시 생활임금 조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상향에 따라 우리시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 마련과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자로는 김종효 노사발전재단 대전·충청사무소장, 황보우 세종시민이 참석해 생활임금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좌장에 윤형권 의원, 주제발표는 안유상 세종시 투자유치과장이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안유상 투자유치과장은 2016년 6월 기준 7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생활임금 적용대상, 결정방식 등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다만, 세종시는 생활임금의 기본 자료가 되는 지역 경제 통계 수치 등의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추이에 따라 생활임금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으며,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노사민정의 지속적인 논의와 최저임금법 및 계약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종효 소장은 노사민정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생활임금제 확대는 민간업체의 협조와 책임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며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황보우 세종시민도 노사민정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하여 운영하면서, 시와 위·수탁의 관계에 있는 민간 업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아울러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KDI를 적극 활용하고, 세종통계사무소를 유치해야 한다는 본인의 소신있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윤형권 의원은 "생활임금위원회 설치는 시기상조이지만,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장려시책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생활임금제도와 함께 주거비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지면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세종=이정복 기자

홍성군 2016년 재정운용상태 '양호'

총 세입 6440억원 · 세출 5566억원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2016년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30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재정운용 결과를 대상으로 살림규모, 재정여건, 채무와 부채, 채권, 주요예산집행 결과 등 9개 분류 59개 항목의 공통공시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공개하게 한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2016년도 1년간 총 세입은 6,440억원이며, 세출 5,566억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8만원인 반면 1인당 세출규모는 485만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홍성군은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50백만원의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았으며, 올해도 우수한 조기집행 실적으로 인센티브가 있을 예정이다.

홍성군 예산팀장은 "우리군은 주민 1인당 세출규모는 높은 반면, 주민 1인당 채무 및 채권현황 낮으며 전반적인 재정운영상황은 동종군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존적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노력과 국·도비, 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홍성=김정한기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세종시인재육성재단, 10월 13일까지… 학생들 학업에 전념 도움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이사장 이춘희)은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17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1년 이상 본인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당시 소득분위 10분위 중 7분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자신의 소득분위가 궁금한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세종시 인재육성재단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인재육성재단 김필중 상임이사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세종시가 올해 상반기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행복청 · 세종시 도시건설 14개 사무 조정 합의

6개 사무 존치, 주택 · 건축 · 옥외광고물 등 8개 사무 이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상호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도시건설 관련 사무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행복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도시 입주민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건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위해 도시계획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집행적 성격의 대민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행복청과 세종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서 및 주요 합의사항에 따르면, 국책사업인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국가의 주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 유비쿼터스 계획 수립 등 계획수립과 관련된 6개 사무는 종전대로 행복청이 계속 수행한다.

다만, 도시계획 수립과 변경 등의 과정에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세종시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고,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시 세종시의 의견수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참여 등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한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업무는 세종시로 이관한다.

다만, 주택·건축 사무는 국가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행복청의 건축조례 제·개정 요청권, 인허가 전 행복청장에 협의,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행복청 참여 등 계획권자인 행복청의 참여 등을 보장하고,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택 분양 및 사업계획 승인, 건축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간 행복청의 노하우, 행정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1년간의 이관 유예기간을 두고 인사교류 등을 통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도시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정지역 안의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관리, 미술작품 설치·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4개 업무 및 마을명칭 제·개정업무 등 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협의,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행복도시법령 및 세종시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정복 기자

홍성군 희망복지 지원단 행복 전도사 역할 '톡톡'

홍성군의 '희망복지지원단'이 희망·행복 전도사로 발 벗고 나서 조명을 받고 있다.

홍성군 희망복지 지원단은 '엄마의 마음처럼'이란 모토 아래 저소득층 여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느끼지 못할 어려움이지만 편부, 조손가정의 여학생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 저소득 여학생의 '깔창 생리대 사건' 등 저소득층 여성용품 문제 해결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가 손을 잡고 저소득층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용품 배부에 나선 것이다.

이 사업은 월드비전과 희망복지중앙지원단이 후원한 가운데 홍성군 관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사례관리대상자 및 저소득층 초·중·고 여학생 2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물품은 여성용품 6개월분과 위생속옷, 바디워시, 파우치 및 생리 웹툰북 등 저소득층 여학생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로 채워졌으며 사례관리사를 통해 개인별로 배부할 계획이다.

군 희망복지팀 담당자는 "한창 예민할 나이인 여학생들의 자존감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전략으로 알코올 중독 바로알기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어 호응을 끌고 있다.

본 교육은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독자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사 및 관련기관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 상담가를 초빙해서 매월 중독관련 주제를 바꿔가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저소득계층의 알코올 중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행복한 가정, 더 나아가 행복한 홍성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홍성=김정한기자

(042)538-3030

오는 11월 말까지 체납액 최소화 초점

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나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11월 말까지 체납액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7월 31일 현재 261억원(지방세 182억원, 세외수입 79억원)으로 9월부터 11월 말까지를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각 읍면동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반환시 과태료 체납액에 안내할 계획이다.

체납액 징수는 직접 방법으로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카드 매출 채권 압류를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신용 정보 제공 등 간접 징수 방법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 기관에서 체납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고,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체납액 징수 추진 성과는 7월 31일 현재 73억원(지방세 66억원, 세외수입 7억원)을 징수했으며, 하반기 41억원(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11억원)을 징수 목표로 금년 상하반기에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총 114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예산군, 농촌지도자 화합수련대회 개최

지역 농업 발전 선도적 역할 기대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0일 윤봉길체육관에서 제59주년 농촌지도자 화합수련대회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촌지도자예산군연합회원, 도시소비자 및 관내 단체장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가치 있는 농업을 실천해 온 농촌지도자회원들의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아산 경찰대의 악단 초청 연주 공연을 시작으로 예산읍 박호열 씨 외 2명의 우수 농촌지도자로부터 방울토마토, 친환경황새쌀, 사과 작목 3분야의 생산과 유통 등에 관한 우수 농업 실천 사례발표를 청취했다.

이어 대술면 이성호 부회장 외 11명은 예산군수상을 광시면 윤종복 회장은 충청남도연합회장상을 대술면 우경식 회장과 신양면 김종률 회장은 국회의원 우수회원 표창상을 수상했다.

식후행사로는 협동바운드, 제기차기, 신발던지기 등 3종의 화합 체육게임과 읍면별 노래자랑이 열려 회원들 간의 단결과 화합의 시간을 가지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기술센터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인천 부평1동의 도시민을 초청 식전공연과 개회식에 참여하도록 해 우수농산물 재배사례를 함께 청취하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지역 농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농촌지도자 화합수련대회를 통해 회원들간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고 급변하는 농업여건 극복과 미래 예산농업을 농촌지도자들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세종청사 정보톡톡' 모바일서비스 개시

오는 4일부터 모바일메신저 · 챗봇 활용

모바일메신저와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세종청사 정보톡톡' 모바일서비스가 4일부터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공무원과 국민들의 세종청사 길찾기, 사무실 위치안내, 시설이용불편신고 등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챗봇(ChatBot)이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로봇이 자동으로 응답하는 대화형 메신저를 말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모바일채팅앱(카카오톡)을 활용,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세종청사 길찾기앱 및 정부청사 사무실 위치안내와 연계, 세종청사를 찾는 방문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구내식당, 통근버스, 청사내 주요 행사, 공연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시설이용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화 로봇(챗봇) 등을 통해 이용자별 불편사항을 예측·해결하는 온디맨드(On-Demand) 상담서비스로 '세종청사 정보톡톡'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한 후 '세종청사 정보톡톡'을 찾아 친구로 추가하면 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세종청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이용자들의 패턴, 트렌드 등을 분석해 타 청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동정

월례모임

복기왕 아산시장=1일 오전 8시 시민홀에서 열리는 월례모임에 참석.

직원 만남의 날

김홍장 당진시장=1일 오전 8시 30분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9월 중 직원 만남의 날에 참석.

양성평등교육

이종윤 당진시의장=1일 오후 4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보육교직원 양성평등교육에 참석.

기념행사

한상기 태안군수=1일 오전 11시 군민체육관 일원에서 열리는 2017년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개회식

이석화 청양군수=1일 오전 9시 청양문예회관에서 열리는 9월 직원월례모임에 참석한 후, 오전 9시 45분 청양공설테니스장에서 개최되는 제4회 청양고추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개회식에 참석.

올해도 관광객 1천만 명 유치 '총력전'

하반기부터 관광 할인 프로그램 '태안투어패스' 운영… 사계절 관광수요 창출

태안군이 주요 관광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2년 연속 관광객 1천만 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31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문화관광체육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추진해온 '시티투어' 및 '코레일과 함께 하는 기차여행' 등 관광 상품과 함께 하반기부터 테마관광 할인상품제인 '태안투어패스'를 운영, 사계절 관광수요 창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투어패스는 천리포수목원, 청산수목원, 팜카밀레, 쥬라기박물관, 태안빛축제 등 5대 유료 관광지를 할인된 가격에 묶어 관람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들 5대 유료 관광업체를 찾는 관광객 수는 연간 123만 명으로 군 전체 연간 관광객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장수입은 연간 112억 원에 달해 태안군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손꼽힌다.

군은 2년 연속 관광객 1천만 명 유치와 군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유료 관광업체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 5개 업체로 구성된 '테마관광협회(회장 박정철)'와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 7월부터 할인된 가격에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 운영에 돌입했다.

태안투어패스는 일반인의 경우 1개소 20%, 3개소 40%, 5개소 50%의 입장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온라인 지정 판매사이트와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5개소(자유이용권) 구입 시 72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군은 지난 6월 행정공제회를 비롯한 6대 공제회와 태안투어패스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결과 8월 20일 현재 4,116개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밖에도, 관광해설사와 함께 태안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폭넓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티투어' 프로그램과, 관광열차를 타고 태안을 방문해 바다와 해안탐방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둘러볼 수 있는 '코레일과 함께 하는 기차여행' 상품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관광객의 입장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관광관련 업체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관광종사자의 서비스 수준 개선과 관광지 편의시설 보강, 관광객 유치전략 보완에 힘써 관광객 1천만 명 유치의 쾌거를 재차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한각 문화관광체육과장은 "태안군이 명실상부한 서해안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은 관광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광객이 만족하는 휴양도시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당진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찾아보자"

지역고용노동포럼 열려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당진시 지역고용노동포럼이 지난 8월 31일 오후 3시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충남 고용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과 실무위원을 비롯해 지역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기업체 관계자, 학계,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발제연설과 지정토론을 청취했다.

지정토론에 앞서 진행된 발제연설에서는 세한대학교 송영학 교수는 '당진시 청년고용을 위한 청년일자리 현황과 고용확대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니트족(취업의지 없이 노동시장 주변에 머무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발제자로 나선 충남 고용네트워크 박상철 연구위원은 '당진시 청년 일자리 사업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당진지역은 청년 고용률이 증가하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반대적 패턴이 뚜렷한 만큼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유인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방안으로 제조업 지원형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신성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과 최승규 에스비(주)대표이사, 박미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 정준호 강원대학 교수, 박인기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시의 청년고용 실태와 정책,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당진형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계기도 됐다"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 기자

아산시 시내버스 일부 노선개편

아산시는 1일 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개편의 중점사항은 신규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시내버스 연계와 도고면 중심의 공영버스 3단계 확대 개편이다.

특히, 내륙지역 최초로 도입하여 주민만족도가 높은 공영버스를 도고면 농은리, 오암리, 화천리, 덕암리, 석당리 일원의 도고저수지 남측 지역은 기존 일반 시내버스노선을 폐지하고 공영버스로만 운행하여 운행효율성을 높이고 공영버스 운행횟수가 10회/일일 미만인 지역엔 마중택시와 병행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게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신도시 지역 등 일부노선에 대한 부분적인 조정 및 폐지와 관련 이용객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노선개편안에 대해 아산시 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http://bus.asan.go.kr)의 공지사항에서 변경사항을 미리 확인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온양1동 한마당 축제위원회 열려

아산시 온양1동 주민화합한마당 축제 추진위원회가 지난 30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축제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선출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축제 개최일 확정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에는 전두철 온양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오는 10월 25일 수요일 온양1동 주민센터 인근 공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전두철 위원장은 "온양1동 한마당축제가 제7회까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올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축제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모든 위원님들이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광서 동장은 "축제를 계기로 더욱더 온양1동이 화합하고 살기 좋은 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안전도시넘버원 청양' 구축

청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열려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 발생 시 대응 활동은 물론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에 체계적으로 임하고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출범했다.

군은 지난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재난대응 민관협력 체계 강화의 첫 단추를 꿰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강준배 부군수와 함께 장동환 (사)해병대충남연합회청양군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분야 교수, 청양군 안전재난과장을 비롯해 구조복구 수색, 의료봉사, 자원봉사 등 각 분야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군은 민간전문가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에 이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평상시 비상연락망 및 인적·물적 DB 구축하고,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전개하며, 재난관리 훈련 및 교육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또 재난 시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현장 협조체계 구축 및 가용자원 지원, 인명구조 및 수색, 피해지역 복구 활동 수행,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등 전문봉사자 지원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강준배 부군수는 "행정기관의 역량만으로는 재난극복에 어려움이 많아 민관협력위원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민관이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둔포면 새마을협의회 마을 표지석 건립사업 실시

아산시 둔포면 남녀새마을지도자(회장 김광국, 부녀회장 유영숙)는 지난 28일, 2017년도 새마을운동 활성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표지석 세우기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매년 실시되는 새마을지도자 봉사활동 실적평가와 마을 표지석 유무를 기준으로 선정된 대상지(송용1리, 송용3리)에 총사업비 575만원을 투입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해 건립하게 됐다.

2개 마을에 마을 표지석이 마을 입구에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의 애향심과 정주여건을 향상시켜주고 단결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마을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설치된 마을 표지석을 본 마을 주민은 "모든 집에 가면 대문에 문패가 있는데 우리 마을은 표지석이 없어서 항상 아쉬웠는데 이렇게 우리 마을에도 표지석이 세워져 보기 좋다"며, 표지석 건립에 힘써주신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보육교사 잠복결핵감염 검진

당진시, 관내 어린이 보육교사 663명 검진 완료

당진시 보건소는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663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지난해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교직원 및 종사자가 근무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당진시는 이번 검진에 앞서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종사자, 유치원 보육교사,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검진을 완료했으며, 오는 11월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5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 관계자는 "유아의 경우 결핵에 노출되면 일반 성인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심해 건강상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어린이집 보육교사 검진을 통해 어린이집 내 결핵 발생 요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잠복결핵은 몸속에 균은 있지만 활동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결핵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상증상과 전염성은 없다.

다만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은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 신체능력이 떨어졌을 때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당진=최근수기자

전년도 재정 6822억원 채무 '0원'

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 태안군 홈페이지 공시

태안군이 2016년도 지방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무리하고 8월 31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태안군의 지난해 자체수입과 의존재원, 지방채 등을 포함한 총 살림규모는 6,8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군 단위 지자체 평균 규모인 5,864억 원 대비 958억 원이 많은 수치로, 특히 군 단위 평균 부채 규모가 73억 원(1인당 채무액 평균 13만 8천 원)인데 반해 태안군의 부채는 0원으로 나타나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은 2016년 말 기준 1조 969억 원 규모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9,626억 원과 비교해 1,343억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체세입의 규모가 작아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예산집행 전 절감계획 확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공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http://tae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기획감사실 예산팀(041-670-2708)에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한기자

효율적 합리적 의료급여제도 알리기

청양군,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간담회 실시

청양군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급여 제도를 알리기 위해 지난 30일 관내 요양시설을 방문해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간담회를 실시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라파노인요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7년 변화된 의료급여 제도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법 ▲의료급여일수 연장방법 ▲요양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간담회를 통해 올바르고 건전한 의료급여제도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백제문화제 성공개최 준비 '착착'

부여군, 행사장 외연 확장, 도심형 축제의 정착화 추진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오는 9월 28일 사비정도고유제를 시작으로 10월 5일까지 열리는 '제63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군은 지난 31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이용우 군수를 비롯한 실·과·관·단·소장 및 읍·면장 등 관계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제문화제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부여군 문화축제추진단의 총괄적인 준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각 실·과·관·단·소0 및 읍·면의 각 부서별 분담 역할과 행정 지원 계획을 점검했다.

올해 백제문화제는 정림사지 주행사장에서 백제문화단지까지 행사장을 자연스럽게 확대·연계시킬 수 있도록 백마강 옛다리를 설치하고, 석탑로 신명의 거리는 주간에는 차량통행을, 야간에는 차량통제 방식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원활한 행사운영과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백제문화제의 시원인 수륙대재는 체험 프로그램과 유등 띄우기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백제마보무예체험, 사비 부여 투어, 이색창조거리 길거리 이벤트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용우 군수는 "백제문화제 행사장 외연이 확장됨에 따라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연휴 기간인 만큼 교통과 주차 문제, 소음민원,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리, 지역상권 활성화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 열리는 제63회 백제문화제는 '한류원조 백제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백제문화제의 기원인 삼충제와 수륙재를 비롯한 10개의 제·불전과 사비천도행렬, 백제역사문화행렬, 계백의 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여=이정복기자

'뮤지컬 루나틱' 공연으로 힐링하세요

계룡시, 오는 8일 오후 7시…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오는 8일 오후 7시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뮤지컬 '루나틱'을 선보인다.

뮤지컬 루나틱은 이미 많이 알려진 공연으로 마음의 아픔을 음악으로 치유하는 내용의 줄거리로 개그맨 백재현이 연출하고 출연하는 작품이다.

이번 작품은 한 정신과의사 '굿 닥터'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힐링 코미디로 폭풍웃음! 폭풍감동! 루나틱만의 개운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공연장에서 울리는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드럼 등 눈앞에서 펼쳐지는 라이브밴드의 환상적인 연주는 일반 공연장에서 접하기 힘든 라이브 뮤지컬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적절한 유머와 라이브 공연의 현장감을 더해 사람들의 가슴에 폭풍감동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의 문턱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을 통해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으로 만7세 이상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인터넷 예매(http://ac.gyeryong.go.kr 또는 인터파크) 및 방문예매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 공공시설사업소(042-840-3703)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 먼저인 민선6기 천안시정 '순항 중'

천안시, 역대 최다 기관수상 경신하는 등 선도적인 시책 추진 '시민중심 행복천안' 실현

'시민중심 행복천안'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민선6기 천안시정이 순항 중이다.

그동안 천안시는 1963년 시 승격 당시 인구 6만3000명인 지방소도시에서 지금은 인구 65만명의 충남의 수부도시로 성장하는 등 괄목할 만한 외적 성장을 이뤘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6기 시정은 '시민중심 섬김시정'을 행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시민의 삶을 더 가치있고 품격을 높이는데 시의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개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직원들의 업무량은 가중되고 있지만 시민의 행복과 천안만의 자긍심을 위해 2천여 공직자들은 행정력을 십분 발휘해 민선6기 출범 후 역대 최다 기관수상을 경신하는 등 중앙정부와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의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 (2011년) 14건 / (2012년) 19건 / (2013년) 19건

민선6기 : (2014년) 21건 / (2015년) 39건 / (2016년) 61건 / (2017.8) 14건 또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 공직자들이 발로 뛰어 국비 확보액도 민선6기 출범당시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 (2014년) 1092억원 / (2015년) 1392억원 / (2016년) 2076억원 / (2017년) 4860억원

특히, 천안시가 민선6기 들어 많은 시민편의 시책을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눈에 띈다.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 지원을 통해 2015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신선과일 거봉포도를 중국에 수출했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벤처·창업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했고, 메르스 등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최초로 감염병대응센터를 지난 4월에 개소했다.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65세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환승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20대 도입하고 운행 중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주민 스스로 마을갈등을 해소하는 주민자치형 마을갈등조정제도를 시행해 전국적인 이슈를 받은 바 있다.

구본영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시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을 두고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 '영외면회제' 일자리 창출 명품정책으로 국무총리 표창

행정홍보대전서 국무총리 표창, 전국서 단 네곳 정부포상 영예

지난 2011년 부활한 '논산육군훈련소 영외면회제도'가 일자리 창출 명품정책으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31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 영외면회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998년 훈련소 영내 가족면회가 폐지된 지 13년 만에 부활한 영외면회제도는 연간 130만 명이 방문함으로써 연간 244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700여 개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고용률(13.5%↑) 향상과 취업자 수 증가(17.9%↑)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또, 軍시설·교육·R&D·레저·인프라 집적으로 국방클러스터 조성과 장병들의 사기 진작으로 강병육성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 시설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민·관·군 공동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꽃차 만들기', 마을기업의 공예체험, 면회객의 휴게공간인 '영외면회 쉼터'에서 운영하는 큰댁어울단 문화공연은 입영면회 만족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인큐베이팅이 되고있다.

육군훈련소 영외면회제 부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역성장동력의 지속적인 발굴과 구축을 위한 탁월한 창조와 혁신 행정으로 지방정부로서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경영 체제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육군훈련소 영외면회제 부활은 시민·사회단체와 900여 논산시 공직자, 육군훈련소가 한마음으로 뭉쳐 이뤄낸 소중한 성과이며, 오늘의 수상 또한 그동안 영외면회 실시에 동참해 성공리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과 기본으로 새로운 논산시대를 열어나갈 시정핵심 추진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시대와 시민이 원하는 시정 구현으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회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은 행정안전부와 문화일보가 주최하고, 227개(광역 17, 기초131, 공공기관 79)의 기관이 참여해 주요정책과 우수사업 등을 공유·확산하는 홍보의 장으로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다.

시는 홍보대전에서 '사람 중심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대표하는 ▲교육공동체, 청년공동체, 지역공동체 등 마을 공동체 동고동락(同苦同樂) 사업 ▲밀리터리파크, 영외면회제 등 국방 클러스터 ▲논산의 축제(논산딸기축제, 강경젓갈축제) 및 문화관광 ▲일자리 창출전략,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논산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린다는 전략이다.

서천군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합동 캠페인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주간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지역사회와 합동으로 '자기혈관숫자알기 레드써클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의 중점 메시지는 응급대처가 필요한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 및 대처요령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인지수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심뇌혈관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심장질환사망율 55.6%, 뇌혈관질환사망률 48%(통계청, 2015)로 우리나라 질병부담이 크고 주요사망원인으로 80%가 예방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군은 9월 1일 월례조회에 참석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영상을 통한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예방교육(11개소), 생활터별 레드써클존 홍보, 체험관, 마당극 공연(우금치-신비의 영약을 찾아라), 릴레이 캠페인(특화시장 외 4개소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행동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조재경 방문보건팀장은 "고혈압·당뇨관리는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여군4-H연합회 '좋은 것 더욱 좋게'

간담회 개최로 농업 발전방안 · 젊은 농업인 역할 논의

부여군은 어려운 농업 현실과 현재 젊은 농업인들이 안고 있는 실질적 고민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지난 30일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부여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4-H연합회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우 군수를 비롯한 최석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H회원들과 지역농업의 발전과 젊은 농업인의 역할에 대해 가슴을 열고 격의 없는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군수는 계속되는 농업여건 악화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농가소득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여 농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젊은 농업인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부여군4-H연합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사랑의 쌀을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기부하는 따뜻한 기회도 마련됐다.

이 군수는 "부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젊은 농업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패기 넘치는 젊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강조하고, 지역 농업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 줄 것과 농업의 4차혁명에도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정책 방향 수립 등 다양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젊은 농업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자주 마련하여 새로운 활력을 갖도록 하는 주기적인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계룡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캠페인 실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경각심 높이는 계기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 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1일~7일)을 맞아 계룡시청, 마을회관, 노인대학 등 곳곳에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스스로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혈관숫자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계룡소방서, 계룡시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진행한다.

계룡시는 연령대비 건강위험요인(흡연, 음주, 운동, 식사)을 가진 집단 중 가사·직장·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미흡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 취약계층 30~40대를 대상으로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4일 계룡시청 1층에 레드서클 존(건강부스)을 설치·운영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와 건강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5일 오후에는 엄사사거리 광장과 화요장터 일원에서 '레드서클 가두캠페인' 및 '건강홍보관'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조기 증상과 대처요령 등을 알리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릴 건강홍보관은 레드서클존, 짠맛(단맛) 미각테스트, 보행분석을 통한 바르게 걷기, 체성분 분석, 금연홍보, 폐 나이 측정, 스트레스 측정, 생명사랑 등 10개의 다양한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보건소는 9월 한 달 동안 3층 건강상담실에서 레드서클존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시민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예방수칙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 정

발대식

구본영 천안시장=1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봉서홀에서 열리는 직원 월례모임에 참석하고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천안흥타령춤축제 2017 자원봉사단 발대식에 참석

기공식

황명선 논산시장=1일 오전 8시 30분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9월 중 월례회의에 참석, 오전 10시 논산시립도서관 건립부지(지산동 112)에서 개최되는 논산시립도서관 기공식에 참석.

제1차 본회의

최홍묵 계룡시장=1일, 오전 10시 계룡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참석.

서천예술제

노박래 서천군수=1일 오전 8시 30분 회의실에서 열리는 월례아침모임에 참석하고 10시 서해병원에서 열리는 서해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개원식에 참석하며 오후 3시 30분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사회복지종사자 화합 한마당 대회에 참석하며 7시 문예의전당에서 열리는 제8회 서천예술제에 참석.

행복공감콘서트

이용우 부여군수=1일 오전8시40분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열리는 행복공감콘서트에 참석.

문산면, 외국인 창성창본 · 개명지원

마중물독서회(회장 윤길숙)는 혼인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들이 귀화 후에도 모국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해줬다.

요즘은 많이 쉬어진 창성창본과 개명 그러나 시골의 다문화가정에는 어려운 일이다. 창성창본 및 개명은 법무사에 의뢰하면 몇십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에 마중물독서회는 이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주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또한 마중물독서회는 인구증가정책의 차원으로 '틈새에서 찾아라' 라는 사업계획으로 귀화자에게 창성창본과 개명을 5명 정도 지원 해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귀화를 독려하고 지역 주민을 늘려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산면에는 다문화 가정이 7가정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중 지난 2013년도에 시집와서 지난해 귀화하여 5살짜리 아들이 있는 마이티투엣란은 성명을 한국식으로 바꾸고 싶었지만, 어려운 시골 살림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창성, 개명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마중물독서회에서 지난 4일 창성, 개명을 하도록 지원했다.

마중물독서회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우편으로 접수해 지난 17일 확정통보 받아 문장김씨로 창성하고 이름을 주란으로 개명허가를 받아 지난 22일 개명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재선 문산면장은 "김 주란은 진정한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나 문장 김씨의 창시자로 지역사회를 위해 살아달라"며 "시모와 아이들, 남편을 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서천=김태선기자

동 정

버스종합정보시스템 개통식

오시덕 공주시장=1일 오전 10시 30분 시내버스정류장에서 열리는 버스종합정보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하고,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관 임용식에 참석.

평생교육강사 역량 강화 연수

김동일 보령시장=1일 오전 9시 30분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평생교육강사 역량 강화 연수, 오후 3시 2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사무관임관식, 오후 4시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9월중 직원모임 참석.

서산 볏가릿대 놀이 시연

이완섭 서산시장=1일 오전 10시 30분 솔빛공원에서 열리는 서산 볏가릿대 놀이 시연에 참석, 오후 4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2017 서산시 축제 발전방안 포럼에 참석, 오후 4시 30분 시장실에서 열리는 조기결혼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 오후 7시 30분 솔빛공원에서 열리는 시립합창단 야외음악회에 참석.

전입 직원 인사

조민행 보령교육장=1일 오전 9시부터 보령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는 9월 월례회의 및 전입 직원 인사에 참석.

서산시 맞춤형 복지차량 구입

가솔린 5대 · 전기차 3대…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제도 홍보에 활용

서산시가 맞춤형 복지차량으로 읍면동 구석구석을 누비며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나선다.

시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에 배치할 차량을 구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국비 6,35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6,900만원을 들여 가솔린 차량 5대와 전기차 3대 등 총 8대의 차량을 구입했다.

가솔린 차량은 ▲대산읍 ▲음암면 ▲해미면 ▲고북면 ▲동문1동에, 전기차는 ▲인지면 ▲수석동 ▲석남동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맞춤형 복지차량 운행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 빠르게 발굴해 해결하고,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위기에 노출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이번에 맞춤형복지 차량 구입으로 시민들이 복지체감도가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는 복지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에 소외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현재 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 민관협력, 통합사례 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산=김정한기자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

공주시, 부동산 전자계약 확산 · 조기정착에 기여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달 30일 고마 컨벤션홀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확산 및 조기정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15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의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및 시행 배경'에 대한 정책설명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소개 및 사용방법' 등 실무위주로 진행됐으며, 교육에 앞서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 청취, 부동산 정보시스템 활용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첨단 ICT 기술과 접목, 공인인증 ·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해 종이 ·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의 장점으로는 첫째, 이중계약, 범죄위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안전성이 보장되며, 둘째 부동산 실거래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의 개별신고 사항이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돼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편리하며, 셋째, 등기 수수료 절감(약 30%) 등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오시덕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전자계약 교육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 확산 및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시행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보령시 동대 3 · 4지구 597필지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

보령시는 지난달 30일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동대 3 · 4지구 597필지, 20만5453㎡의 경계를 심의 · 의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에 지정됐으며, 현황측량 일필지 조사, 소유자 간 경계조정 합의 및 경계점 설치, 지적확정 조서 통보 및 의견수렴, 의견제출사항 검토 및 소유자 협의 과정을 거쳐 동대 3지구(301필지, 15만3826㎡)와 4지구(245필지, 5만1627㎡)의 경계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또 사업 시행에 따라 당초 사유지는 431필지, 15만8899㎡에서 464필지, 15만91049㎡로 33필지, 205.9㎡가 증가했고, 국 · 공유지도 115필지, 4만6554㎡에서 18필지, 1240.5㎡를 확인하는 성과도 얻었다.

특히, 이번 경계확정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경계 정형화, 맹지해소 등으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며, 토지에 대한 재산권 보호로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 통지하게 되며,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공고와 함께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기부등본이 새로이 작성될 예정이다.

한수택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우/리/동/네

공주시, 학교급식에 전통식품인증 전통장류 공급

지역 농가 · 생산자 소득 증대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9월부터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에 전통식품인증을 받은 고추장, 된장, 국장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미 전액 지원하고 있는 초 · 중학교 무상급식비 외에 추가로 약 3천만원의 전통장류 공급 예산을 책정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역에서 생산한 콩과 천일염 고춧가루를 이용해 만든 장류를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식품의 선순환체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주시 영양교사회 한 임원은 "지역의 안전한 식재료로 만든 전통장을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돼 지역급식의 질적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기로 한 공주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홍숙 농정유통과장은 "올해로 로컬푸드 연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 2년차에 들어갔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와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급식센터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보령시,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참가

관광 · 기업 · 우수마을 홍보

보령시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 등을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 참가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일보가 공동주최하는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은 전국의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우수사례 홍보, 채용정보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홍보의 장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마을기업, 관광 · 축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제시한다.

보령시는 이번 행정홍보대전에서 머드축제, 머드화장품 및 관광축제 홍보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 ▲마을 기업의 작품 전시 및 홍보 ▲ 보령특산품 홍보 등 다양한 분야를 선보인다

또 청진영어조합법인에서는 행복맛김 홍보 및 판매, 남포면 미친(美親)서각영농조합법인에서는 서각작품 전시 및 제석골 예술축제 및 전통주 홍보, 마을기업인 글과나무에서는 실용 목공예 작품 전시와 머드화장품을 판매한다.

특히, 행사 첫날 보령머드축제 리플릿과 샴푸, 린스, 비누 등을 담은 샘플 400여개가 동이 나며 큰 인기를 실감했고,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사례 전국 우수 분야인 서각과 실용 목공예 작품은 전시와 함께 체험 부스도 운영하며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일 시장은"지구촌 여름 최대의 축제인 보령머드축제를 다시 한 번 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과 마을 기업, 보령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참가하게 됐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서산시 이 · 통장 한마음화합대회 성료

전국이통장연합회 서산시지회가 1천여명의 이통장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서산시민체육관에 열린 해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

이날 식전행사인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이완섭 시장의 모범 이통장 및 반장 30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다.

이어 볼링축구, 바구니에 공 집어넣기, 투호놀이와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강재원 지회장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통장들이 더욱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서산시의 이통장들은 지역의 일꾼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잊지 않고 더욱 헌신할 것"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MBC 220-2348~9▶TJB 281-1101▶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뉴스광장	6:10걸어서 세계 속으로	6:00 MBC뉴스투데이	6	6:00 모닝와이드	6:00 충청남도 영상소식 6:30 메디컬 인	6:10 명의
	7:00생방송 아침이 좋다		7		7:00 은혜로운 말씀 7:30 시청자뉴스	7:00 두다다쿵 7:30 모피와 친구들 7:40 이얍! 스페이스정글
7:50 인간극장	8:00 KBS아침 뉴스타임	7:50 훈장오순남				8:00 두다다쿵
8:25 아침마당	9:00TV소설 꽃피어라 달순아 9:40여유만만	8:30생방송 오늘 아침	8	8:30 달콤한 원수	8:00 뉴스와이드	8:30 봉구야 말해줘 2
9:30 KBS 뉴스		9:30 MBC생활뉴스 9:45 기분좋은 날	9	9:10 좋은 아침	9:00 2017 프로야구 한화 vs KT	9:00 명탐정 피트2 9:20 타요의 씽씽극장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40 지구촌 뉴스		10	10:10 SBS 뉴스 10:25 SBS 생활경제		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명품역사관 정도전 11:50 UHD 한국의 유산	11:00 인간극장 스페셜	11:00 MBC 파워매거진	11	11:0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11:30 고향이 보인다		11:00 하나뿐인 지구 11:40 한국기행
12:00 KBS뉴스12	12:15 인간극장 스페셜	12:00 MBC정오뉴스	12	12:00 SBS뉴스	12:00 굿뉴스	12:00 EBS정오뉴스 12:10 문화유산 코리아
1:00 렛츠고 평창 웃어라 대한민국 1:20 TV비평 시청자데스크		12:20 도둑놈 도둑님	1	1:00 2017 DGST 세계명문대학 조정축제	1:00 시청자뉴스 1:20 김경란교수의 부모교육 1:30 CMB집중토론	12:20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13:40 명탐정 피트
2:20 열린채널 2:50 팔도밥상 스페셜	2:00 KBS뉴스타임 2:10 생생정보 스페셜	2:30 똑?똑! 키즈스쿨	2	2:00 뉴스브리핑		14:00 시뽀롱뽀롱 뽀로로 14:30 두다다쿵
3:00 노래가 좋아	3:05 후토스-잃어버린 숲 3:30 타오르지마 버스터	3:25 응카소나타2 3:30 드림주니어	3		3:00 굿뉴스	15:00 드래곤 길들이기 15:25 정글북
4:00 4시 뉴스집중	4:00여유만만	4:00 경제매거진M 스페셜	4	4:00 궁금한 이야기 Y	4:00 메디컬 인 4:30 문학의 향기	15:4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16:00 토닥토닥 마음아 16:20 그림을 그려요 16:30 플라워링 하트
5:00 KBS 뉴스5 5:30 동물의 세계	5:00 뮤직뱅크	5:00 MBC이브닝 뉴스 5:40 병원선	5	5:00 SBS 오뉴스	5:00 김영진의 집대성	17:10 미사와 곰 17:20 이얍! 스페이스 정글
6:00 6시 내고향		6:10 생방송 오늘 저녁	6	6:10 언니는 살아있다 스페셜 6:45 생방송 투데이	6:00 뉴스와이드	17:30 주사위요정 큐비쥬 18:00 톡! 톡! 보니하니 1
7:00 KBS 뉴스7 7:35 장사의 신	6:30 2TV 생생정보	7:15 돌아온 복단지 7:55 MBC뉴스데스크	7		6:20 2017 프로야구 한화 vs KT	18:05 코봇 지구를 지켜라 18:20 톡! 톡! 보니하니 5
8: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7:50이름없는 여자		8	8:00 SBS8뉴스		18:45 소년시대 18:55 톡! 톡! 보니하니 4
9:00 KBS 뉴스9	8:30 글로벌 24 8:55 연예가중계	8:55 랭킹쇼 1.2.3	9	8:55 궁금한 이야기 Y	10:00 잠시 쉬어요, 스마트폰 10:30 풋볼클리닉	19:00 갤럭시 안전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찾아 삼만리
10:00 KBS 스페셜 10:55 숨터	10:00 VJ특공대	9:30 발칙한 동거 빈방있음	10	10:00 정글의 법칙	11:00 다이어트미	20:40 다큐오늘 20:50 하나뿐인 지구
11:00 KBS 뉴스라인 11:40 콘서트 7080	11:00 최강 배달꾼	11:05 나혼자 산다	11	11:20 백종원의 푸드트럭		21:30 한국기행 21:50 명의 22: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뉴스광장	6:25 생생정보스페셜	6:00 MBC 뉴스투데이	6	6:00 모닝와이드 7:10 다이노코어 7:25 에일리언 니나뇨 7:40 SBS 뉴스토리	6:00 충청남도 영상소식 6:20 김경란교수의 부모교육 6:30 열린미디어 시청자세상	6: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7:50 남북의창	7:25 속보이는TV 인사이드	7:10 경제매거진 M	7			6:30 통일 미리보기 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8:30 시니어토크쇼 황금연못	8:25 슈퍼맨이 돌아왔다	8:00 도둑놈, 도둑님	8	8:30 언니는 살아있다	7:00 은혜로운 말씀 7:30 문학의 향기	7:30 뚝딱맨
9:20 KBS 뉴스 9:30 걸어서 세계속으로		9:30 라디오스타 스페셜	9	9:25 언니는 살아있다	8:00 섹션뉴스 8:30 시청자뉴스	8:00 출동! 슈퍼윙스 8:30 모여라 딩동댕 9:00 너티너츠
10:30 노래가 좋아					9:00 2017 프로야구 한화 vs KT	
11:30 영상앨범 산	10:10 영화가 좋다		10	10:25 접속! 무비월드		9:30 허풍선이 과학쇼
12:00 KBS뉴스 12:10 동행	11:20 개그콘서트	10:00 토요 MLB 라이브	11	11:30 애니메이션 런닝맨		10:00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10:30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1:00 나눔의 행복, 기부 1:15 국악 한마당	12:40 최강 배달꾼	12:00 MBC뉴스 12:10 무한도전 스페셜	12	12:00 SBS뉴스 12:10 런닝맨	12:00 섹션뉴스 12:30 시청자뉴스	11: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1:50 지식채널 e
2:05 헬로 카봇5 2:20 매직어드벤처 2:35 취재파일 K	1:45 살림하는 남자들	1:25 병원선	1	1:15 추블리네가 떴다	1:00 풋볼클리닉 1:30 메디컬 인	11:55 지식채널 e 12:00 최고의 요리비결
3:15 역사저널 그날	2:50 맨홀-이상한 나라의 필	2:35 왕은 사랑한다 3:20 MBC 뉴스 3:30 쇼! 음악중심	2	2:20 SBS뉴스 2:30 조작	2:00 김영진의 집대성	12:30 최고의 요리비결
4:05 생로병사의 비밀			3		3:00 섹션뉴스 3:30 시청자뉴스	13:00 최고의 요리비결 13:30 최고의 요리비결
5:00 KBS 뉴스 5:10 동물의 세계 5:40 한국인의 밥상	4:50 아버지가 이상해	4:40 나혼자 산다 스페셜	4	4:50 미운우리새끼	4:00 제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기업의 비전과 전략	14:00 최고의 요리비결
6:30 행복한 지도			5		5:00 가고 보고 먹고	14:30 나눔 7080
7:00 KBS뉴스 7:10 천상의 컬렉션	6:05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6:20 무한도전	6	6:10 추블리네가 떴다	6:00 섹션뉴스 6:30 시청자뉴스	15:10 한국기행 16:05 한국기행 16:50 장학퀴즈-학교에가다
8:05 다큐공감	7:55 황금빛 내 인생	7:55 MBC뉴스데스크	7	8:00 SBS8 뉴스	7:00 CMB 집중토론	17:40 다문화 고부열전
9:00 KBS 뉴스9 9:40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8:45 밥상 차리는 남자	8	8:45 언니는 살아있다	8:30 잠시 쉬어요, 스마트폰	18:35 엄마를 찾지마 19:2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	9:15 배틀트립	10:00 도둑놈, 도둑님	9		9:00 섹션뉴스 9:30 시청자뉴스	20:15 극한직업
	10:45 김생민의 영수증		10		10:00 김영진의 집대성	21:05 이것이 야생이다 22:00 EBS 다큐프라임
11:20 한중수교 25주년 특선 다큐 6부작 중국이야기	11:00 최강 배달꾼	11:15 세상의 모든 방송	11	11:10 그것이 알고 싶다	11:00 다이어트 미	22:55 세계의 명화 <디파티드>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 6:10 한국인의 팔도밥상 6:40 101세의 프러포즈 7:10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6:25 KBS재난방송센터 7:35 영상앨범 산	6:10 통일전망대 7:00 MBC 뉴스 7: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6	6:00 SBS 뉴스 6:1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7:1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7:40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6:00 충청남도 영상소식 6:20 김경란교수의 부모교육 6:30 열린미디어 시청자세상	6:00 가족의 발견 6:30 희망풍경
8:00 KBS뉴스 8:10 일요진단	8:05 연예가 중계	8:0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7		7:00 은혜로운 말씀 7:30 문학의 향기	7:00 꼬마버스 타요 7:30 소피 루비
9:00 한중수교 25주년 특집 미래를 말하다	9:00 1박 2일	9:00 복면가왕 스페셜	8	8:35 생활의 달인	8:00 섹션 뉴스기자가 만난 세상 8:30 시청자뉴스	8: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0:10 UHD 문화기행 낭만 오디세이 스페셜	10:30 해피투게더	10:40 신비한 TV서프라이즈	9	9:05 생활의 달인 9:30 TV동물농장	9:00 집중토론	8:30 모여라 딩동댕 9:00 미사와 곰
11:00 TV쇼 진품명품	12:10 최강 배달꾼		10		10:30 잠시 쉬어요, 스마트폰	9:3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0: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2:00 KBS 뉴스 12:10 전국노래자랑		12:00 MBC 뉴스 12:10 출발 비디오 여행	11	10:5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0:3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20 우리들의 공교육 시즌2 1:50 특별기획 안전 대한민국 제로의 약속	1:10 학교 2017	1:15 병원선	12	12:00 SBS 뉴스 12:10 SBS 인기가요	11:00 열전동네방네	11:00 장학퀴즈-학교에가다
	3:30 아버지가 이상해	2:25 밥상차리는 남자	1	1:20 정글의 법칙	12:00 섹션뉴스 12:30 시청자뉴스	11:50 미스터리 휴먼다큐
2:50 특집다큐 지구촌에 희망을 쏘다		3:35 MBC 뉴스 3:45 섹션 TV 연예통신	2	2:20 SBS 뉴스 2:30 다시만난 세계	1:00 김영진의 집대성	12:20 명의
3:40 행복한 지도	4:50 해피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 1박2일>	4:50 일밤 <복면가왕 / 세상의 모든 방송>	3		2:00 가고 보고 먹고	13:15 다큐시선
4:10 이웃집 찰스			4	4:50 런닝맨 1부	3:00 섹션뉴스 3:30 시청자뉴스	13:55 일요시네마 <클리프 행어>
5:00 KBS 뉴스 5:10 동물의 왕국			5	5:40 런닝맨 2부	4:00 제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업의 비전가 전략	16:1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6:45 세계의 눈
6:00 열린음악회	7:55 황금빛 내 인생	6:45 오지의 마법사	6	6:25 판타스틱 듀오2	5:00 열전동네방네	17:35 세계테마기행
7:00 KBS뉴스 7:10 도전, 골든벨		7:55 MBC 뉴스데스크	7		6:00 섹션뉴스 6:30 시청자 뉴스	18:15 세계테마기행 18:55 세계테마기행
8:10 글로벌 다큐멘터리-헌트	9:15 개그콘서트	8:45 밥상 차리는 남자	8	8:00 SBS 뉴스 8:45 맨 인 블랙박스	7:00 CMB 집중토론	19:35 세계테마기행
9:00 KBS 뉴스9 9:40 역사저널 그날			9		8:30 잠시 쉬어요, 스마트폰	20:15 성난 물고기
10:30 취재파일 K	10:40 2017 드라마 스페셜 <우리가 계절이라면>	10:00 도둑놈, 도둑님	10	10:00 미운우리새끼	9:00 섹션뉴스 9:30 시청자뉴스	21:05 이것이 야생이다 22:00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
11:10 한중수교 25주년 특선다큐 6부작 중국이야기	11:40 다큐멘터리 3일	11:15 병원선	11	11:00 SBS 스페셜	10:00 김영진의 집대성 11:00 다이어트 미	22:55 한국영화특선 <위험한 상견례>

TV 하이라이트

▲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20분)

세나의 방해에도 달님이 개발한 라면이 신제품으로 선택된다. 이에 조건부였던 달님의 엄마 찾는 광고를 막으려 이란은 세나에게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다. 선호는 세나와의 결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계속 어긋나는 세나가 마음이 쓰이고, 재욱은 이란에게 다른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데...

▲ 도둑놈, 도둑님 (2일, MBC 오후 10시00분)

돌목(지현우)이 일권(장광)의 상속 변호사를 맡았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받는 소주(서주현)! 시계가 도청장치임을 안 돌목과 준희(김지훈)는 중태(최종환)를 속이기 위한 쇼를 시작한다. 한편 일권 일가에서는 누가 일권을 죽인 건지 서로에 대한 끝없는 의심이 시작되는데...

케이블 명화

▲ 도둑들 (1일 OCN 오후 4시30분)

한 팀으로 활동 중인 한국의 도둑 뽀빠이와 예니콜, 씹던껌, 잠파노. 미술관을 터는데 멋지게 성공한 이들은 뽀빠이의 과거 파트너였던 마카오박이 제안한 홍콩에서의 새로운 계획을 듣게 된다. 여기에 마카오박이 초대하지 않은 손님, 감옥에서 막 출소한 금고털이 팹시가 합류하고 5명은 각자 인생 최고의 반전을 꿈꾸며 홍콩으로 향한다. 홍콩에서 한국 도둑들을 기다리고 있는 4인조 중국도둑 첸, 앤드류, 쥴리, 조니. 최고의 전문가들이 세팅된 가운데 서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국과 중국의 도둑들. 팽팽히 흐르는 긴장감 속에 나타난 마카오박은 자신이 계획한 목표물을 밝힌다. 그것은 마카오 카지노에 숨겨진 희대의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지만 2천만 달러의 달콤한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이들은 태양의 눈물을 훔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 비밀은 없다(2일 채널CGV 오후 10시00분)

진실을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비밀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영화.

국회입성을 노리는 신예 정치인 '종찬'(김주혁)과 그의 아내 '연홍'(손예진)

선거를 보름 앞둔 어느 날, 그들의 딸이 실종 된다.

갑작스럽게 사라진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애를 쓰던 '연홍'은 딸의 실종에도 불구하고 선거에만 집중하는 '종찬'과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 홀로 딸의 흔적을 쫓기 시작한다.

하지만 딸이 남긴 단서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연홍'은 점차 드러나는 충격적 진실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유력한 후보, 사라진 딸, 15일간의 미스터리 선거 D-15, 딸이 사라졌다!

감성 듀오 '유리상자' 데뷔 20주년 맞아 아산 공연

아산시가 주최하고 (재)아산문화재단 주관하며, 큐리어스 뮤직이 제작하는 아산문화재단 브랜드공연 <콘서트 '청춘별곡'2 유리상자> 공연이 9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아산시 여성회관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감성 듀오 '유리상자'는 1997년 '순애보'로 데뷔하여 감미로운 목소리와 수많은 히트곡들로 지금까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리상자'의 데뷔 20주년의 의미를 더한 이번 공연에서는 '사랑해도 될까요', '신부에게', '웃어요' 등의 대표곡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또한 지난 6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지역 뮤지션 'URI'와 '박재우'가 젊은 감각으로 '유리상자'의 노래를 함께해 더욱 풍성한 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아산문화재단 브랜드공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 '청춘별곡'>은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뮤지션들의 노래를 동료나 후배들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지난해부터 아산문화재단이 지역의 공연기획사, 뮤지션과 함께 진행하는 공연이다. 故 김광석을 추억하는 '영원한 청춘, 가객 김광석' 공연에 이어 올해는 '유리상자'의 무대로 마련됐다.

지난 8월10일 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 관람권(VIP석2만원, S석 1만5천원)판매는 일주일 만인 8월16일 전석이 매진되어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문화재단 [041)534-2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광석중, 음악과 함께하는 뒤뜰야영 캠프 실시

학생들 인성교육 및 공동체 의식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석중학교는 8월 25일~26일 1박 2일로 음악과 함께하는 뒤뜰야영 캠프를 실시하였다.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지고 학교 문화를 개선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캠프 파이어 및 다양한 놀이를 통해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었고 자신의 꿈과 소망을 적어 만든 '청사초롱'은 깜깜한 밤하늘을 오색영롱하게 밝혔다. 또한 촛불 의식을 통하여 가족 및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껴보고 밤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를 관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박 2일 동안 학교에서 실시한 야영을 통해 협동심과 감사의 마음을 길러 주었으며 친구들 간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논산=김태선기자

자동차 종합 정비공장 에스더블유기업(주) SW
대표이사 안 경 호
Tel. 042-528-1801 / Fax. 042-528-1833
Mobile. 011-429-6377 / e-mail. kyungho0710@nate.com
www.sw-motors.com

MSL 레저용품 전문점 명성레포츠
스키 · 스노보드 · 자이글 · MTB ·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 모터보트 · 전문화 · 골프용품
專務理事 최 재 종
FAX : 042)472-5883 H · P : 011-406-0660 Website : www.mslsports.co.kr

충남도교육청, 황조근정훈장 12명 등 155명 훈포장 전수 충남도교육청은 31일 본청 대강당에서 퇴임교육공무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8월말퇴임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한밭대, 충청권 진로 · 진학 · 상담교사 워크숍 개최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교내 학생회관4층 컨벤션홀에서 '201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충청권 진로 · 진학 · 상담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영상대, 대학으로 유일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2017) 참가 한국영상대학교(총장 유재원)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지난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2017)에 참가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선보였다.

대전 장애인 행복지원 센터 장애인들과 나들이 지난8월 29일 롯데시네마 대전 둔산관에서 대전 장애인 행복지원 센터 봉사자들이 대전 지역에 있는 지체,중증장애인 분들을 모시고 영화봉사를 했다.

"행복한 충남, 안전사회 만들기를 위한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제고" 새마을지도자충청남도협의회(회장 유재문)는 안전지킴이 봉사활동 강화와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충남새마을지도자 15시군 회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안전지킴이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본부, 표창장 · 임용장및 IPP 인사발령통지 수여식 한국국토정보공사(LX · 구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신을식)는 지난달 31일 본부 회의실에서 국가공간정보 유공자에게 국토부장관 표창장, 승진자에게 임용장 및 장기현장실습생(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이하 IPP)에게 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를 수여했다.

2017년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수상

이석화 군수, 대한민국 경제리더 선정

이석화 청양군수가 3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7년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시상식에 올해의 대한민국 경제리더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민선 5기와 6기를 이끌고 있는 이 군수는 '도약하는 군정 신명나는 청양'이라는 군정 방침아래 인구증가와 부자농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혁신경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구 3만5000명 대망의 2020 프로젝트 달성을 목표로 세운 청양군은 지난 50여년 간 연 평균 1300여명이 감소해 오던 인구가 지난 2013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이석화 군수의 시의적절하고 탁월한 각종 시책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특히 2011년 출범한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재단은 5년 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억을 조성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려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의 외부유출 억제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인구증가와 함께 군정 2대 축인 '부자농촌 만들기'를 통해 리더 육성, 경쟁력 강화, 생산기반 구축, 6차산업화, 도농교류활성화, 농외소득 창출의 6대 전략과제를 추진, 2020년까지 농가소득을 5000만원, 억대 농가 500호로 늘리는데 온힘을 쏟고 있다.

틈새작목 개발, 친환경농업 확대, 젊은 귀농인 유치를 통한 농촌 활력화 등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사짓기 좋은 환경개선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고령화 등 불리한 농업여건 속에서도 청양군은 2016년 농업소득 4101만6000원으로 충남도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청양의 대표적인 관광지 칠갑산과 국내 최장(2017. 6. 19. 한국기록원 인증) 207m 출렁다리가 설치된 천장호를 중심으로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명품관광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석화 군수는 "청양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가 적으며 대외 인지도가 낮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줄어만 가던 인구를 증가시킨 청양군민들의 저력에 힘입어 역경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군민들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위대한 청양, 군민 만족시대'를 열어 넘버원 청양을 만들 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충남도 공무원 2017 영어 프리젠테이션 경연대회

서산시 공무원 최우수 · 우수상 차지

사진왼쪽부터 유소정 · 안성화 주무관

서산시 공무원들이 충남도 공무원들의 영어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겨루는 대회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휩쓸었다.

시에 따르면 30일 충남공무원교육원에 열린 '2017 영어 프리젠테이션 경연대회'서 대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유소정 주무관(행정9급)과 안성화 주무관(행정9급)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했다.

충남도내 공무원 12명이 참여한 이 대회에 서산시에서는 유 주무관과 안 주무관을 비롯해 5명이 참가했다.

이 대회는 개인별 발표(7분/PPT)와 심사의원 질의응답(5분)으로 구성됐으며, 원어민강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심사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석권한 것은 서산시 공무원들의 외국어 실력을 입증하는 방증" 이라며 "이들의 능력이 서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대나무 빗자루로 훈훈한 정 나눠요

청양군 운곡면분회경로당, 대나무 빗자루 만들어 이웃 나눔 실천

청양군 운곡면 분회경로당(윤명희 회장) 회원 30여명은 지난 30일 대나무를 이용해 빗자루를 만들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를 통해 각 마을별 노인회원들은 한 자리에 모여 대나무 가지를 잘라 빗자루를 만들면서 즐거운 담소와 음식을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회원들이 만든 대나무 빗자루 80여개는 각 마을회관, 면사무소,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해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눴다.

청양=정상범기자

건양대, 벤처 스타트업 경진대회 금상, 은상 수상 건양대학교 학생들이 명지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주최한 <2017 벤처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다. 지난 23일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 건양대를 포함해 건국대, 동국대, 국민대, 선문대 등 14개 대학이 참가했다.

온양한올고,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휩쓸어

온양한올고등학교(교장 박우승)가 지난 25일에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각종 상을 휩쓸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7월 25일 서울 SETEC 국제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이 대회에서 고등부 최고상인 국회의장상(1학년 권수경)을 비롯해, 대상-중소기업부장관상(3학년 김지선), 은상-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3학년 허은진), 동상-발명진흥회장상(3학년 전서정, 염지윤), 장려상-한국대학발명협회(3학년 전희지, 오현지, 최가희, 1학년 이다영)까지 총 9명이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대회는 평소 자신이 생각해 왔던 아이디어를 직접 모형으로 제작하고 포스터 발표하는 방식으로, 총 4300여 개의 작품이 접수돼 치열한 경쟁 속에 치러졌다.

아산=리량주기자

경로당 충효인성교육 평가보고회

충효인성교육원, 위탁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

충효인성교육원은 8월 31일 오전 11시 교육원에서 경로당 충효인성교육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로당충효인성교육은 (주)금성백조와 (주)라이온컴팩의 기부금을 노인회 대전연합회에서 지정 기탁을 받아 충효인성교육원에 위탁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4월부터 8월까지 125개 경로당에서 실시했다.

웃음치료 · 노래강사 · 민요 · 마술등 재능있는 강사들이 재미있게 충효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여 큰호응을 얻었다. 김태선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충남대 장찬동 교수 구글 스콜라 세계 1위

충남대 지질환경과학과 장찬동(사진) 교수의 논문이 구글 논문 검색 서비스인 'Google scholar'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돼 'Classic paper'에 선정됐다.

'Google scholar(http://scholar.google.co.kr/)'는 구글이 제공하는 학술논문 정보 검색 서비스로 최근 10년간 각 학문분야별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들을 'Classic paper'로 선정한다.

장찬동 교수는 지난 2006년 주저자로 'Journal of Petroleum Science and Engineering'에 'Empirical relations between rock strength and physical properties in sedimentary rocks'을 게재했으며, 2016년 말까지 총 330회가 인용돼 Oil, Petroleum & Natural Gas 분야에서 10년 동안 인용 횟수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 논문은 석유, 가스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시추과정에서 안정적인 시추공 분석, 저류층에 대한 다양한 역학적 성질들을 분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암석강도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미국, 중동 등 석유업계를 중심으로 다수 인용되고 있다.

이정복기자

부여교육지원청, 제28대 이종설 교육장 취임

제28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이종설(56, 사진) 교육장이 9월 1일 취임한다.

이종설 교육장은 "행복한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부여교육을 위하여 첫째 학교현장을 적극지원하고, 둘째 바른 인성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지원청을 실현하고, 셋째 지역 공동체 모두가 성장하는 부여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금강자연미술프레비엔날레 자연미술 큐브展 작품 공모

(사)한국자연미술가협회-야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 공주시의 후원으로 2017 금강자연미술프레비엔날레 자연미술 큐브전 '12x12x12+자연' 작품을 오는 9월 16일까지 공모한다.

작품은 '자연'을 주제로 한 12x12x12cm의 큐브 형태의 입체 작품으로 큐브 형태 안의 소재의 선택은 제한이 없고 표현방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국내외 자연미술 작가, 어린이, 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은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미산자연미술공원에 상설 전시된다. 2017 금강자연미술프레비엔날레 '12×12×12+자연'은 12cm의 작은 정사각기둥에 자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담아내는 큐브전이다. 정상범기자

기 고

계란 한 알의 행복, 함께 지키겠습니다

김 영 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매일 식탁에 오르는 국민 반찬이자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 계란! 요즘에는 귀한 반찬도 아니지만, 바쁜 현대인에게 계란만큼 만만한 식재료도 없다.

계란 한 알 톡 깨뜨려 구워내는 프라이, 물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간단히 간식이 되는 삶은 계란, 심지어 비빔밥, 라면 위에도 계란이 빠지면 섭섭할 정도다. 식탁 위 작은 행복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계란이지만, 얼마 전부터 선뜻 손이 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네덜란드 · 벨기에 등 유럽을 강타한 소위 '살충제 계란' 파동이 얼마 전 국내에서도 발생하였다. 이후 대만 · 이탈리아 · 오스트리아에서도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는 등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8월 초 부터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8월 14일 일부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가 검출됐다. 검출 당일, 농식품부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편을 최단 시간 내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1239개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계란 출하 중지 명령을 내리고, 3일간의 전수검사를 실시하였다. 전수조사 결과, 52개 농장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해당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 · 폐기 중에 있으며 적합판정을 받은 계란은 시장에 출하하도록 허용했다.

처음으로 3일 이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다 보니 조사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과 부정확한 발표로 우려와 혼선도 있었고, 일부 농업인들께는 선의의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즉시 보완 · 재조사를 실시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선의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제는 계란파동의 종식을 넘어 근원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은 먹거리 안전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국산 계란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부적합 농장은 출하 검사를 대폭 강화했다. 적합 농장도 1개월 내에 불시 검사를 통해 불법 살충제 사용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산란 노계도 도축 시 정밀검사를 거치는 등 현행 검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사육환경 등의 축산업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산란 닭이 케이지나 평지에서 사육됐는지 등을 계란 껍질이나 포장에 표시토록 하고, 동물 복지형 농장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유럽(EU) 기준의 사육밀도(마리당 0.075㎡) 준수 의무화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생산 · 유통 · 판매에 이르는 닭고기 · 계란 이력추적제를 2019년부터 조기 도입하고, 추적관리를 위해 계란 시별 표시방식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농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 판매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안전성 검사의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용 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진드기 제거가 가능한 친환경 약제 개발 · 보급에도 힘쓸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농약검사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 인증은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또한 같은 인증기관에서 3회 연속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식탁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필자 또한 계란 반찬을 좋아하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계란 한 알의 행복을 반드시 지키고 싶다. 이번의 시행착오는 결국 우리 식탁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낼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기 고

김승희 의원의 노숙인복지법 개정안을 접하면서

원 용 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우리사회에서 노숙인 지원을 위해 관련법이 제정된 것은 5년 전인 2012년이다. 그 이전에는 소위 부랑인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었지만 그 법은 노숙인을 지원하기보다는 가난하고 집이 없다는 이유로 부랑인으로 정의하고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자로 여기고 이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는 형벌적, 반인권적 제도였다. 다행히 노숙인에 대한 시각이 1998년 IMF경제체제 당시 급격히 늘어난 노숙인을 보면서 그들이 사회의 암적 요소가 아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노숙인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노숙인 관련 단체와 연구자들에 의해 노숙인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갖는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노숙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노숙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당시 노숙인을 지원하는 관련법을 제정하는데 소극적이었던 보건복지부와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법은 아주 기형적인 형태를 띄게 되었다. 예를 들어 노숙인 지원기관으로는 쪽방상담소가 편재되어 있으나 쪽방노숙인에 대한 정의나 개념, 지원을 위한 근거는 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아주 생뚱맞게 쪽방상담소 운영에 관한 것만 삽입되어 있는 수준이다. 또한 노숙인 의료급여도 노숙인만 유독 진료기관 당연지정제를 시행함으로 노숙인은 아파도 국가가 지정한 곳만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의 해명은 여전히 노숙인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보다 더 기형적인 것은 노숙인 지원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로 이원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어떤 근거나 원칙도 없이 기존의 부랑인시설은 중앙부처가 IMF이후 생겨난 노숙인시설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관련법을 보면 노숙인 지원체계는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활, 요양, 자활, 일시보호, 쪽방상담소로 되어있는데 재활, 요양시설은 중앙정부가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담당한다면 법체계와 정부의 지원체계가 서로 상이한 구조인 것이다.(심지어 서울의 경우 재활시설 중 일부도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노숙인지원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여 지난해 말 양승조의원의 대표발의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숙인법에 있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생뚱맞게 김승희의원실에서 노숙인지원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놔둔 채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 중앙종합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얼마 전 김승희의원실에서 노숙인지원법 시행 5년에 대한 평가 토론회가 열리더니 곧바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건 뭐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들기까지 한다.

김승희의원은 개정안 제안사유를 "… 현행법에서는 노숙인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연계, 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지원센터의 경우 기존의 대도시 위주의 상담센터를 종합지원센터로 명칭만 변경한 수준에 지나지 않아 노숙인 발견과 지원의 최일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원센터의 체계 및 업무를 명확히 하여 노숙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 · 연구 · 개발, 지역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숙인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연계, 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노숙인 복지지원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종합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종합지원센터가 없어서가 아니라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이 지방정부의 몫이기에 소도시 지방정부의 경우 노숙인지원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전국노숙인시설협회에서 의정부, 울산, 광주지역의 쪽방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해당 지자체에서는 쪽방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숙인 지원체계에서 중앙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은 노숙인 지원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중앙정부로 일원화하는 것이요, 양승조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중앙센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놔둔 채 단순히 중앙센터만 만들어진다면 예산낭비의 표본이요,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며, 옥상옥에 불과할 것이다.

감히 김승희의원께 요청한다. 뜬금없는 중앙센터 설립이 아닌 지금 노숙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개정안은 다분히 노숙인을 위한 개정안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사 설

블라인드 채용, 최소한 자율성 줘야

현재의 공공기관 인사역량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이 어렵고 오히려 청탁과 같은 부정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한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채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고'를 통해 순환보직과 연공서열식 인력운영을 해온 현재의 공공기관 인사역량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성공시키기 어려우며 오히려 필기시험 성적에 과다하게 의존할개연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블라인드 채용은 개별 고용주체인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에 대한 자율적인 진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방침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은 정부 주도의 통제 중심적 접근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블라인드 채용을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공기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이 차별과 기득권을 없애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가 능력과 상관없이 출발선이 어디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의미 있는 시작이다. 하지만 문제는 부작용이다. 이미 많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간 채용기준으로 삼았던 출신학교 · 학점 등을 배제하는 대신 실력만으로 뽑을 '새로운 평가 잣대'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경험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자칫 외모와 첫인상이 최고의 능력이 되는 '운에 의한' 채용으로 전락하거나 서류전형 대신 필기시험이 사실상 '1차 관문'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부족하기 그지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블라인드 채용 가인드라인(지침)을 배포했지만 시행시기와 편견 개입 항목 배제 등 원칙과 기준만 제시했을 뿐 방법에 대한 것은 없다. 이달에도 전국 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지만 지방공기업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 · 응답 사례 소개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수준에 그쳤다.

놀런 부시널이란 탁월한 채용 안목을 지닌 인물이 없었다면 스티브잡스의 첫 직장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아예 취업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블라인드 채용이 스티브잡스를 골라낸 것이 아니다.

공기관의 채용역량 강화가 먼저다. 그건 최소한의 자율성 부여로 시작된다. 당위성이 충분해도 준비가 부족하면 쉬어가야 한다. 부작용과 역효과는 최소화해야하기 때문이다.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막아야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이 부주의에서 비롯하고 있다. 물론 기계고장으로 갑자기 역작동하는 바람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2016년 전국에 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63건이다.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209명이 다쳤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등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전도사고가 126건(77.3%)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중 비 오는 날에 전도사고가 36건(28.5%)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스컬레이터 틈새에 신발이나 옷자락이 낀 경우는 30건(18.4%), 역주행 1건, 기타 6건으로 파악됐다.

발생 장소는 백화점 등 판매시설이 112건(68.7%)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 역사 등 운수시설이 41건(25.2%),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 5건(3%) 순이었다.

사고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61세 이상 노령자가 74명, 12세 이하 어린이 22명 등이다.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 걷거나 뛰지 말기 ▲ 디딤판 내 노란 안전선 안에 서서 손잡이를 잡기 ▲ 어린이 · 노약자는 보호자 동반 ▲ 유아나 애완동물은 품 안에 안기 등이 중요하다.

아울러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에서 주위에 소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인권 경찰'의 삶이란

기 고

유 현 진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경장

최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수장이 선임됨에 따라 각종 공공기관 및 일반 단체들에게 요구되는 항목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인권'이라는 두 단어라고 볼 수 있겠다.

최근 우리 경찰 내부에서는 인권경찰을 향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인권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인권경찰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철주야 불문하고 항상 긴급한 신고접수나 출동 및 각종 대민 봉사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경찰관들은 항상 술에 취한사람들과 시름을 하면서 힘을 빼고 각종 정당한 법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법집행을 하여야하는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각종 긴급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이외에도 각종 교통사고를 위한 단속 및 주취폭력 등 각종 처벌 대상자들에게 법집행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인권을 우선시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국민들의 편에서 고민하자는 생각으로 인권경찰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권이라는 두 글자를 앞장세웠지만 그 실천이 잘 되지 않아 각종 불법체포 등 여러 가지 사안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부터는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국민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인권경찰의 기본 뿌리가 될 것으로 소망한다.

항상 국민을 위한 마음과 국민에게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찰의 이미지는 더욱더 신뢰와 믿음으로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자신에 대한 배려심 및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경찰의 인권에 대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마음을 국민들도 서로 이해해 준다면 선진 경찰, 으뜸경찰, 인권경찰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오늘의 소사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 현 정	회 장	김 성 구	논설위원	조 정 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산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상담문의 041-736-7200
학교 조형물 리모델링(보수, 도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kidp
kibo 벤처기업인증

All children are artists. The problem is how to remain an artist once he grows up. *Pablo picasso*

더 큰 사랑을 보다!

스승 존경과 제자 사랑으로 넘치는 사제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공간 - 학교

학교에 설치되는 환경조형물은 아이들의 생각을 실내공간에서 벗어나 실외공간으로 확대하여 자연공간과의 친화성을 높이고 미적 감수성, 창조성, 정서성을 배울 수 있으며 보다 넓게 인간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아실현과 협동 봉사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조형물의 설치는 폭 넓은 생각과 시각적 재미를 경험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성격형성과 지적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학습의 간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작 품 명 사제상(특허등록)
작품크기 1250*720*2500
작품특징 사제상은 스승은 사랑으로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

30년 전통의 조형물 전문회사
www.hd-space.com

학교조형물 대표브랜드
I LOVE Artschool Environmental sculpture

국내 유일 학교조형물 전문회사 (주)현대공간조형이 사랑으로 만듭니다
- 30년 역사와 전통의 환경조형물 전문업체의 품격
- 새로운 공법(특허 제작공법)으로 경제적인 부담 최소
- 최고의 작가, 최고의 작품의 예술성이 높은 조형물
-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조형물

도원초등학교	특장X, 특장XL, 장독	연봉초등학교	사제상
진잠초등학교	가족학상	월평초등학교	음성
도안초등학교	음성	속초송다리 유치원	사제상
나래초등학교	사제상	석정초등학교	가족학상
석양초등학교	사제상, 가족입상, 가족상		

(주)현대공간조형
조형물 전문상담
041.733.9558
www.hd-space.com